

2022 호남한국학 열린 강좌

호남 지식인들의 생활사 만나기

- 일 정 : 2022년 9월 20일 ~ 10월 15일
- 장 소 : 미로센터 미로극장 1관(동구 중앙로 예술의 거리)
- 주최/후원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주 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Honam Foundation

<프로그램>

강좌	일 시	강의 주제	강사
1강	9.20(화) 19:00	조선 문인, 그림 그리기에 빠지다 -공재 윤두서의 삶과 예술	이태호 다산 숲 아카데미 원장 명지대석좌교수
2강	9.22(목) 19:00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	정창권 고려대 교수
3강	9.27(화) 19:00	고봉, 퇴계와 '편지'를 통해 뜻을 통하다	이향준 전남대 교수
4강	9.29(목) 19:00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맺은 인연들	김태희 전 실학박물관장
5강	10.4(화) 19:00	수려한 자연을 닮고 싶다, 호남여행기	정성일 광주여대 교수
6강	10.6(목) 19:00	호남대로 : 호남선비의 과거길 땅끝에서 한양까지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7강	10.11(화) 19:00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생활	김미선 전남대 강의교수
8강	10.13(목) 19:00	호남 사림의 스승과 제자, 친구 찾기	고영진 광주대 교수
답사	10.15(토) 09:00~	땅끝 관두포 · 이진항 → 다산초당 → 백운동정원 → 월남사지	

※ 이 프로그램의 강사와 주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1강	조선 문인, 그림 그리기에 빠지다 - 공재 윤두서의 삶과 예술	5
2강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	25
3강	고봉, 퇴계와 '편지'를 통해 뜻을 통하다	31
4강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맺은 인연들	43
5강	수려한 자연을 닮고 싶다, 호남여행기	51
6강	호남대로 : 호남선비의 과거길 땅끝에서 한양까지	61
7강	호남지역 선비의 포로생활	69
8강	호남 사림의 스승과 제자, 친구 찾기	75

제1강

조선 문인, 그림 그리기에 빠지다 -공재 윤두서의 삶과 예술

이 태 호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다산 숲 아카데미 원장

조선 문인, 그림 그리기에 빠지다

-공재 윤두서의 삶과 예술

이 태 호¹⁾(명지대학교 석좌교수,
다산 숲 아카데미 원장)

시작하며

풍속화는 이 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실경산수와 함께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의 여러 생활 양태들을 주된 회화의 대상으로 삼은 조선후기의 새로운 동향이다. 봉건사회 해체기 혹은 근대적 여명기로도 지칭되는 18-19세기의 사회변화 속에서 직접 생산을 담당한 민중들의 일과 놀이, 그리고 삶의 일상들을 표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풍속화의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세 사회의 화가가 피지배층인 민중의 생활을 예술의 표현 대상이 삼았다는 사실은 분명, 사회변동 속에서 민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풍속화에 등장한 현실세태와 민중 삶의 다양한 모습은 변혁기의 사회상을 그 어느 문헌보다도 생생하게 검증해 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사료이다.

풍속화에 담긴 새로운 예술의지는 인간에 대한 폭 넓은 인식으로 가능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신분질서가 와해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념적 고사인물도 같은 형식의 그림을 탈피하여, 민중과 양반층의 일상생활이 동일선상으로 소재화된 사실은, 인간 삶의 가치가 크게 신장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임진.병자 양대 전쟁을 치르고 난 후 경제력의 성장과 함께, 봉건사회 내부에서 민중의 지위와 역할이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윤두서의 그림을 당시 '중인층이 좋아하였고 수표교 최씨가 많이 소장하였다'라거나²⁾ 김홍도의 후원자 중에 소금장수 갑부가 포함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이³⁾, 풍속화의 유행은 예술 향수자 내지 교양층으로 새로이 부상한 부민층과 무관하지 않음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조선후기 민중생활과 현실세태를 담은 풍속 그림을 당대에는 '속화(俗畵)라 불렀다. 당대

1) (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목포대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 회장(08-10),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장(11-13), 한국서원학회 회장(11-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13-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2) 남태응, 『청죽화사(聽竹畵史)』.

3) 이동주, 『한국회화소사』, 범우사, 1996, 147쪽.

양반 지식층의 감상화에 대비하여 풍속화를 '저속한 계층의 삶을 담은 그림, 더 나아가 일상의 삶 자체가 속된 일'이라는 의미로 불렀던 것이다. 이 연유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생산활동과 일상사가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사회경제와 민중의식의 성장에 따라 풍속화가 그 사회 속에 뿌리내리고, 양반층의 산수화나 인물초상화 등과 함께 당당한 회화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자 지배계층의 문화적 우월성에 준하여 그렇게 지칭된 것이다.

민중의 생산력을 소유했던 조선시대 양반선비에게 민중을 생각하는 전통적 인식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백성을 앞세운 허울 좋은 민본주의 윤리관이며, 다른 하나는 풍류적 은일사상으로 세속을 떠나 사는 초부(蕉夫)나 농어부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양반선비의 유교적 정치이념으로서 조선시대 회화 역시 그 사상의식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전자, 즉 지배자가 민본주의를 표방한 경우는 『시경(詩經)』 등에 나타난 무일(無逸)정신으로, 민중생활상을 도식화해낸 빈풍칠월도(빈風七月圖)나 경직도(耕織圖)류의 궁중 실용화가 있다⁴⁾. 후자인 은일사상은 고사(高士) 말고도 초부나 농어부를 소재로 등장시킨 산수인물화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

이런 역설적인 민중 인식과 그에 따른 관념적 회화경향에 비하여 17세기 말, 18세기 전반 윤두서와 조영석의 '속화'는 같은 양반 사대부 문인화가이면서도 민중에 대한 관점이 사뭇 다르다. 인간사(人間事)로서 민중의 노동생활을 직접 회화적 대상으로 포착한 까닭이다. 이들의 생활현실을 담은 그림은 민중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근대를 준비하는 시기에 나타난 진보적 사회의식의 한 표명으로 다가온다. 이들의 회화가 사회의식과 현실 감정을 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관념적 표현을 탈피하려는 사실주의적 창작태도에 있다. 공재 윤두서에서 관아재 조영석으로의 변모, 두 화가의 회화세계를 비교해 보면, 속화의 비중이 커졌고 사실주의적 표현 방식이 더욱 실제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먼저 현실에 눈뜬 화가에 의해 그려지기 시작한 풍속화는 18세기 후반~19세기 초 김홍도·김득신·신윤복 등 화원화가에 의해 예술적 완성을 보게 된다.

1.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의 풍속화

공재 윤두서(1668-1715)는 조선 후기 풍속화의 태동을 예고하는 가장 중요한 작가이다. 윤두서의 민중생활도인 속화 그림은 민중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실주의 창작태도가 맞물려 있는 까닭에 풍속화의 선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선비화가로서 윤두서가 속화를 그리게 된 개인사적 배경은, 그의 신분상 위치와 생활관에서 쉽게 찾아진다. 먼저 윤두서는 해남 연동에 대지주로 터를 내린 해남 윤씨 어초은공파 후손으로서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증손자이면서 남인 계열에 속한다. 당시 서인-노론이 집권한 정치현실에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재야적 성향의 지식

4) 정병모, 「조선시대 후반기 풍속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1.

5) 김주련, 「조선시대 어부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인인 셈이다. 사대부의 학문인 경학(經學)을 중심으로 시.서.화는 물론 천문.지리.수학.군사학.음악.공예 등 잡학에 탐닉하였고, 옥동(玉洞) 이서(李滉)와 성호(星湖) 이익(李瀾) 형제들과의 절친한 교분으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실학자로서의 면모 또한 갖추었다⁶⁾.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그의 첫번째 부인이 조선에 서학(西學)을 소개한 이수광(李睟光)의 증손녀인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충분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관료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윤두서의 심경은 시조 <옥(玉)>에, 실사구시적 현실인식에 따른 비판성향은 칠언시인 <전가서사(田家書事)>에 역력히 담겨 있다.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리시니
오는 이 가는 이 흙이라 하는고야
두어라 알 이 있을지니 흙인 듯이 있거라
- <옥(玉)>

모기는 일어나고 파리는 잠드니 날이 더울까 두렵고
푸르고 설익은 보리는 밥을 끓여 먹을 수가 없구나
이웃집 개는 짖고 외상 술빛은 급한데
고을관리마저 세금을 재촉하러 깊은 밤 문앞에 이르렀구나
- <전가서사(田家書事)>

다음으로 윤두서의 사대부로서의 엄격한 생활태도에 나타난 평민의식과 민중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앞의 <전가서사>라는 현실비판적 시와 농사일의 전원서정을 읊은 시 <청(晴)>,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후배들이 쓴 행장이나 제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아들 윤덕희(尹德熙)가 쓴 「공재공행장(恭齋公行狀)」에는 신분적 특권을 내세우지 않고 “하인에게 이름을 불러 주었다”라든지 “고향 사람들의 가난한 삶을 보고 자기 집안에 빛진 채권 기록을 불태웠다”, 그리고 향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아끼고 다정하게 대하였다”는 등 힘들게 살아가는 민중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쏟은 일화들이 담겨 있다⁷⁾ 이들 일화를 통해 윤두서의 품성과 나물 캐는 여인, 돌 캐는 석공, 목기 깎는 사람 등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민중 삶을 그리게 된 인간주의의 동기를 엿볼 수 있다.

진보적 의식으로 민중 생활상에 눈 떠

이러한 윤두서의 사회의식과 실사구시적인 창작태도는 풍속화에서는 물론 조선 후기 사실주의 회화의 선구적 면모를 지닌다. 윤두서의 표현력과 사실성은 그의 대표작인 <자화

6) 이태호, 「공재 윤두서」, 『전남(호남)지방의 인물사 연구』, 전남지역개발협의회, 1983. ; 이영숙, 「윤두서의 회화 연구」, 『미술사연구』1집, 1987. ; 이내옥, 「공재 윤두서의 학문과 회화」,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7) 이을호, 「공재 윤두서 행장」, 『미술자료』 14호, 국립중앙박물관, 1970.

상>을 비롯하여 <심득경초상(沈得經肖像)>(1710)과 말 그림 등에 잘 드러나 있다. 그의 정밀하고 빼어난 묘사력과 사실주의적 창작태도는 대상의 참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정확히 관찰한 것에서 기인하는데, “인물이나 동식물을 그릴 때면 꼭 종일토록 대상을 주목해서 그 진형(眞形)을 터득한 후에야 붓을 들었다”라거나 “동자를 그릴 때면 머슴아이를 모델로 세웠다”는 기록과 그에 대한 화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 이런 경향은 학문에 있어서도 “반드시 연구 조사하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사(實事)에 비추어 밝혀내고 배운 바를 향시 실득(實得)하였다”는 자세와도 맞물려 있다⁹⁾.

묘사기량이 뛰어난 선비화가 윤두서의 명망은 바로 옛 전범에 대한 ‘실득’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중국에서 전래된 『당시화보(唐詩畫譜)』나 『고씨화보(顧氏畫譜)』를 보고 똑 같이 베끼는 연습을 통해¹⁰⁾, 그리고 ‘안견에서 김명국에 이르는 조선 전반기 화가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목과 평가’를 토대로 그림공부를 한 것이다¹¹⁾. 윤두서는 더 나아가 그것들에서 배운 바를 ‘실득’하기 위해 직접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관찰하고 탐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체득된 사실적 창작태도는 현실 대상을 포착하여 자신의 사회의식과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담아 민중생활상을 그려내는 데까지 발전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때문에 우리는 윤두서를 조선 후기 풍속화의 선구에 놓고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이룬 그의 업적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민중생활상을 담은 윤두서의 그림은 여섯 점 가량이다. 해남의 종가 소장품으로 <나물 캐는 두 여인(採艾圖)> <짚신 삼는 노인> <목기 깎기(旋車圖)> <쟁기질과 목동(耕畚牧牛圖)>과 <낮잠(樹下午睡)>, 그리고 최근 새로이 공개된 <돌 깨는 석공(石工攻石圖)> 등이 알려져 있다. 종가 소장의 윤두서 화첩은 1722년 아들 윤덕희가 유작들을 수습하여 꾸민 것이다. 화첩의 그림들은 전체가 소품에 해당하고 간결한 소묘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연대가 밝혀진 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에서 해남으로 낙향(1713년)한 이후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말년 작으로 추측된다. 농촌생활상을 다룬 작품의 경우, 현장을 소재로 택한 그림의 내용도 그러하려니와 담백한 수묵선묘풍이 말년에 해남에서 그린 것으로 짐작케 한다.

<나물 캐는 두 여인>은 봄날에 산기슭에서 쑥을 캐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두 여인은 머릿수건을 둘러쓰고 속바지가 드러나도록 치마를 걷어올려 일하기 편할 복장이다. 저고리의 길이가 허리춤까지 내려와 있는데, 18세기말 ~ 19세기 초반의 풍속화에 표현된 여인의 짧아진 저고리 모습과 잘 비교된다. 망태기와 칼을 든 여인은 썰 쑥을 찾은 듯 막 허리를 굽힌 자세이고, 뒤쪽 여인은 빠뜨리고 지나친 쑥이 없나 돌아보는 듯한 뒷모습이다. 이 두 여인이 서 있는 비스듬한 언덕 주변에는 간소한 필치의 갈대와 잡풀과 자갈이 묘사되어 있고, 옅은 먹으로 처리한 먼 산과 그 왼편 멀리 한 마리 제비가 화면의 균형을

8) 남태응, 앞의 책.
 9) 이을호, 앞의 글.
 10) 남태응, 앞의 책.
 11) 윤두서, 『記拙』上.

잡아주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조선 아낙네의 인물과 달리 산수 풍경에서 전통화풍이나 화보에서 익힌 형식적 잔영이 짙게 남아있다는 점이다. 뾰족한 먼 산의 모양도 우리 산천의 풍경과는 거리가 있다.

같은 농가 풍속인 <짚신 삼는 노인> 역시 인물의 사실 묘사에 비하여 오히려 울창한 고목 처리, 근경의 바위와 풀 표현은 화보풍이다. 두 발을 곧게 펴고 엄지발가락에 끈을 걸어 짚신을 삼는 노인의 표정은 덩덤하다. 마치 서울을 떠난 윤두서의 탈속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이 작품과 같은 필묵 맛과 구도로 큰 나무 아래 인물을 배치한 <낮잠> 역시 풍속화적인 소재이다. 이 작품은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즐기는 윤두서 자신의 '흠인 듯 숨어 있는 옥'의 모습을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간결한 필치지만 얼굴 모습이 <자화상>과 꼭 닮아 있어서다. 이 그림을 통해 볼 때 윤두서는 민중생활뿐 아니라, 18세기 선비화가들의 일상적 자기 생활상을 그리는 사인(士人)풍속도 면에서도 선구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쟁기질과 목동>은 본격적인 풍속인물화라기보다 산수화에 점경인물로 농촌 풍속을 담은 작품이다. 수목과 산, 언덕의 표현에 화보를 통해 익힌 방식이 두드러져 있다. 그 풍경 처리에 반하여 중경의 산언덕에서 쟁기질하는 농부와 근경의 풀밭에 두 마리 소를 풀어 놓고 낮잠을 즐기는 목동은 비교적 풍속화의 분위기에 가깝다. 특히 목동의 모습은 화원 김두량의 작품으로 전해오는 <목동오수도(牧童午睡圖)>와 유사해서, 김두량이 '윤두서를 공부하였다'(『東稗洛誦續』)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림이다¹²⁾.

그리고 풍속화다운 맛이 가장 잘 살아 있는 그림으로는 배경을 아예 생략해버린 <목기 깎기>를 들 수 있다. "공재 언(孝彦:윤두서의 字)이 선차도를 희작했다(恭齋彦戲作旋車圖)"라고 쓴 이 그림은 공예에 관심이 컸던 윤두서의 실학적 취향을 읽게 해준다. 앞의 작품보다 인물 묘사나 의습 선묘의 먹선이 딱딱한 편이어서, 해남에 내려오기 전 서울에서 그렸을 것이라 추정되는 작품이다. 진한 먹의 소묘법은 축대와 주변 도구의 배치와 함께 마치 회전식 목물(木物) 깎는 기계를 소개하기 위한 도해의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면 서도 화면구성이나 인물표정에 회화성이 충분히 살아 있다. 두 발에 핏대줄을 걸고 축을 돌리는 인물의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왼팔 부분을 수정한 흔적이 눈에 띈다.

윤두서의 선구적 풍속화는 아들 윤덕희와 손자 윤용에게 가전되었다. 또 문인화가 조영석의 풍속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관상감을 지낸 강희언이나 화원 김두량같은 중인층 전문 화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강희언은 풍속화를 완성한 단원 김홍도의 절친한 선배였고, 김두량 역시 김홍도의 스승 격인 화원 선배였다.

2. 아들 윤덕희와 손자 윤용에 계승된 풍속화

연옹 윤덕희(蓮翁 尹德熙, 1685-1766)는 공재 윤두서의 큰아들로 가업을 계승한 조선 후기

12) 김상엽, 「남리 김두량의 회화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의 선비화가이다. 자는 경백(敬伯), 호는 낙서(駱西)나 녹우당이 있는 연동(蓮洞)의 마을 이름을 따서 연포(蓮圃), 혹은 연옹(蓮翁)이라 하였다. 아버지 윤두서는 선비화가로서 조선 후기 화단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벼슬길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와 달리 윤덕희는 아버지의 명성을 배경으로 관리로서 등용되는 인연을 가졌다. 영조 24년(1748)에 어진을 모사할 때 선비화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감동에 선발되었다. 그것이 벼슬길에 오르는 계기였고, 현감, 도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사후 동지중추부사에 추증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행장을 썼고 현재 종가소장의 윤두서화첩인「해남윤씨가전고화첩」(보물 481호)도 그가 정리해서 표장한 것이다. 이 작업은 윤덕희 자신의 화업보다 아버지 윤두서의 회화를 후세에 전한 위업으로 높이 살 만하다. 또한 그런 탓에 전통성이 강한 윤두서의 화풍을 더욱 철저히 습득하였다.

윤두서를 전수 받은 윤덕희의 회화는 '신선과 말을 잘 그렸다'(이공익『연려실기술』)는 화평에 손색없는 중국적인 소재의「하마선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 도석인물을 비롯하여「송하고사」,「기마미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의 고사인물 및 그러한 내용을 담은 산수인물, 그리고「기마인물」과「말그림」(국립중앙박물관 소장)들이 유존한다.¹³⁾ 그런 회화적 관심은 부업을 계승한 이유도 있겠고 당시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것들의 전통적 화풍에 비하여「월야산수」(개인 소장),「설경산수」(서울대박물관 소장)를 비롯한 산수나 산수인물화에서는 영조시대 화단의 유행에 동참하여 윤두서보다 남종화풍의 수용이 비교적 깊게 느껴진다.

그리고 종가에 소장된 그의 화첩 중에는 필력이 미흡하지만 단양의「도담삼봉도」도 남아 있어 진경을 사생하는 일에는 관심을 보였음이 확인된다. 그의 회화에는 대작이 많기는 하나 역시 답보적이고 보수적인 냄새가 강하다. 또 거칠고 투박한 필치로, 짧은 생애 동안 이룩한 윤두서의 탁월한 필력과 화경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 중에서「공기놀이」(국립중앙박물관 소장)는 풍속화에 향한 그의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 취향 때문인지 풍속화가 지녀야 할 현실 감각이 덜하다. 실제로 윤두서의 시각을 감안한다면 더욱 진전된 윤덕희의 풍속화를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참 미약하다. 그 점도 윤덕희가 아버지에 비하여 회화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청고 윤용(1708-1740)은 연옹 윤덕희의 차남이다. 영조 11년(1735)에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며 할아버지 윤두서와 아버지로부터 화재를 이어받았고 문장에도 뛰어났으나 뜻을 다 펴지 못하고 33세로 요절하였다. 어쨌든 그는 가업을 계승한 선비화가로서 3대에 걸친 조선후기의 명문화가 가정을 이루게 하였다. 윤용은 술을 좋아하였다 하며, 기품이 화

13)『湖南의 傳統繪畫』, 圖版 53-78.

미하고 맑은 성품에 단려한 용모를 지녔다고 전해 온다.

요절한 때문에 현존하는 유작이 많지 않으나 그것들은 대체로 산수, 도석인물, 풍속 등 집안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남종화풍의 수용에 보다 적극적인 면이 나타난다. 또한 그는 구름과 나무, 화조, 초충 등에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다고 전해 오는데, 할아버지 윤두서의 화법을 이어 자세한 관찰력과 정심한 묘사를 갖추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사촌 여동생의 아들로 조카뻘인 다산 정약용은 윤용의「취우첩(翠羽帖)」에 대한 화평에서 “화목, 령모, 곤충을 그렸는데 정말 실물을 닮았고, 그 묘리는 정세하며 생동감이 넘친다...윤공은 나비와 잠자리를 잡아서 그 수염, 턱, 맴시 등을 면밀히 관찰해서 그 보습을 똑같이 그린 뒤에야 붓을 놓았다 하니 그분의 정결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겠다...”(『與猶堂全書』1卷)라고 하였다.¹⁴⁾ 이를 통해서도 윤두서의 위업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아버지인 윤덕희보다 나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윤용의 토속미가 가득한 시골 아낙네 그림

농촌의 풍물을 담은 속화로 <봄 캐는 아낙네(挾籠採春圖)>를 남긴 청고(靑皐) 윤용(尹用;1708-1740)은 윤두서의 손자로 할아버지의 화풍을 이어받았다. 아버지 윤덕희도 화가로 명성을 얻어 3대에 걸친 선비화가 집안을 형성하였다. 이른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윤용은 남인계 집안의 전통에 따라 정계진출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자연 시문학과 예술방면에 심취하여 재능을 발휘하였고 33세로 요절하였다. 그는 술을 좋아하였으며 기품있고 맑은 성품에 단려(端麗)한 용모를 지녔다고 전해온다. 유작은 많지 않으나 남종화풍의 산수, 도석인물, 풍속 등 현존하는 작품은 역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또 실제 작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구름과 나무, 꽃과 새, 풀벌레 그림에도 뛰어났고, 할아버지의 화법을 이어 진득한 관찰습관과 정심한 묘사력을 갖추었다고 한다.¹⁵⁾

윤두서를 착실히 계승한 윤용의 진면목은 '망태기를 옆에 끼고 봄을 캐러 나선(挾籠採春) 아낙네' 그림(간송미술관 소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윤두서의 <나물캐는 두 여인>을 연상케 하는 이 작품은 윤두서보다 필치가 설익었지만 인물의 표정은 오히려 현실감난다. 선비화가의 시각이 참신하고 깨끗한 그림이다. 윤용은 할아버지 이상으로 봄날 농촌 서정을 유연한 회화적 감흥으로 승화시켜내었다.

여인은 망태기를 메고 자루가 긴 호미를 든 채 먼 허공을 응시하며 뒤돌아서 있다. 머리에 수건을 싸매고 소매는 걷어붙였으며, 치맛자락을 허리에 말아 올리고 속바지를 무릎에 올려 묶은 여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시골 아낙네의 복장이다. 짙신을 신고 투박한 잔주름 치마에 받쳐입은 검정색 무명저고리, 허리까지 내려온 저고리의 복장은 당시 풍속화의 날

14) 李泰浩, 「茶山 丁若鏞의 繪畫와 繪畫觀」, 35-36面.

15) 정약용, 《여유당전서》.

렵한 서울 여인과 대조되어 매우 토속적이다. 속바지 아래로 드러난 장단지와 짚신 속의 발, 호미를 쥐 손과 팔을 묘사한 소략하고 얽은 먹선은 일하는 농촌 아낙의 건강한 생활미가 적절히 배어난다. 발 밑의 길쭉 풀은 간소한 붓질로 처리하여 여인의 정서와 조화시켰다. 특히 여인이 바라보는 텅빈 들녘에서는 그림 곁에 딸린 자하(紫霞) 신위(申緯)의 화제시처럼 푸릇한 봄의 무한한 공간감이 느껴진다. 특히 화면의 오른쪽 어깨 높이에 '군열(君悅)'이라는 자신의 자(字)를 써넣었는데, 진한 먹의 굵고 날카로운 서체가 마치 이 여인이 쥐 호미로 땅을 팍팍 긁어놓은 것 같다. 이처럼 윤희는 할아버지 윤희서의 혁신적 시각을 계승하여 민중적 소재에 애정을 듬뿍 담아낸 것이다.

가난한 삶 속에서 일하러 나선 시골 아낙의 등 돌린 자세를 대범하게 포착한 점이나 공간처리, 중간톤의 섬세한 변화 속에 배어 있는 덩덤한 수묵감각은 선묘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시골 아낙네의 감정 표현에는 모자람이 없다. 선비화가의 눈에 비친 그대로의 솔직한 표현이 이 그림에서 받는 진한 감동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호미를 수평으로 틀어쥐고 멀리 봄기운을 향한 뒷모습의 여인에게서 언뜻 의미심장한 시대정서가 읽혀진다. 윤희서와 조영석을 이어서 새롭게 포착한 민중 삶의 모습인 것이다. 이처럼 화면의 근경에 뒷모습의 사람을 등장시키는 방식은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화에 계승되는데, 이는 보는 이를 그림 속에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인본주의의 길을 튼 서구 르네상스 초기 회화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뛰어난 감각의 윤희가 33세의 나이로 요절한 데 대한 아쉬움이 쉽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외에「蒸山深靑」,「夜深明月」(서울대박물관 소장),「樓閣山水」(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의 산수화 및「神仙圖」(서강대박물관 소장) 등 도석인물이 유존하는데 이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화풍을 승계한 것이다.¹⁶⁾ 그러면서도 산수화에는 윤희의 섬세한 감각이 눈에 띈다. 그것은 당시 화단에 풍미하기 시작한 남종화풍을 체득한 화풍으로 여겨진다.

3. 윤희서와 강희언의 '돌 깨는 사람들'

최근 새로이 공개되어 주목을 끌었던 윤희서의 속화는 <돌 깨는 석공>이다. 특히 그림의 크기와 재료, 내용과 형식이 강희언(姜熙彦)의 작품인 <석공도>와 흡사하기 때문이었다. 18세기 수장가이자 당대의 감식안으로도 유명했던 석농(石農) 김광국(金光國;1685~?)의 발문이 달려 있고 '효언(孝彦)'이라는 표주박 모양의 양각 도인이 찍혀 있는 이 <돌 깨는 석공>은 앞의 증가 소장품보다 한층 회화적 완성도가 높다¹⁷⁾. 윤희서가 자기의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버렸고, 남에게 그림을 줄 때에는 까다로웠다는 점을 수긍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담죽(澹拙)'이라는 양각 방인이 찍힌 강희언의 <석공도>보다 좀더 강한 먹과 탄력 있는 필치로 그려진 이 작품은 아래쪽 바위와 잡풀, 왼쪽 언덕과 나무, '<'식으로 배치

16) 『湖南의 傳統繪畫』, 圖版 79-81.

17) 이태호·유홍준, 『조선 후기 그림과 글씨』, 학고재, 1992.

된 화면구성에서 앞의 <짚신 삼는 노인>이나 <낮잠>과 같은 형식미를 보여준다. 바위에 구멍을 뚫는 두 인물의 긴장감 넘치는 자세의 정확한 포착이나 생생한 표정이 속화의 감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김광국의 발문에서 윤두서와 조영석을 비교하고 있어, 후배인 강희언이 그대로 임모(臨摹)하였음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증거가 된다. 김두량의 목동 그림과 함께 윤두서가 차지하는 18세기 화단에서의 위상과 조선 후기 속화의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케 해주는 사례이다. 조선 후기 풍속화를 완성한 김홍도와 김두량의 화원 선후배 관계, 그리고 김홍도와 강희언의 교분관계로 미루어 그러하다.

이 밖에도 윤두서의 '속화'에 근사한 작품으로는 간송미술관 소장의 <나뭇꾼(雪山負柴)>이 있는데, <짚신 삼는 노인>과 유사한 구성, 화풍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노승도>와 선면의 <수하노승도(樹下老僧圖)> 역시 현실 소재의 속화적 경향이다. 윤두서의 그림 가운데 비교적 대작인 <노승도>는 감필법(減筆法)으로 처리한 지팡이와 의습선묘가 선종인물화(禪宗人物畫) 형식이면서도 섬세한 얼굴 표현은 실제 노승을 보고 그린 듯 초상화를 연상케 한다. <수하노승도>는 세속에서 벗어난 사대부의 은일적 소재이긴 하나 <노승도>보다 속화의 느낌이 더 강하다. 긴 지팡이를 어깨에 걸치고 고목의 밑둥치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는 노승의 모습은 윤두서가 일상의 주변에서 찾은 듯한 현실감이 느껴진다. 이런 소재는 조영석이나 심사정 등 후배 선비화가들에게로 이어진다.

윤두서의 속화들은 머슴아이를 모델로 세우고 그 형상을 탐구하였다고 전해오듯이 인물의 성격에 적합한 동세 포착과 생생한 표정 설명이 돋보인다. 또 그에 어울리는 공간 구성, 모시의 섬유질에 적절히 베어 들어간 먹의 섬약하면서도 강단 있는 세련미와 필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탄탄한 형식미를 갖춘 회화성에도 불구하고 윤두서의 속화에는 처음 댄 붓끝에 힘을 주고 그은 도식화된 인물의 의습선묘나 나무와 언덕과 산의 풍경묘사에 화보나 전통화풍의 잔영이 짙게 남아 있어 풍속화적 느낌을 감소시키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는 '속화'의식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현실감의 미흡에서 온 결과로, 속화의 유행을 두 세대 이상 기다려야 했던 시대적 한계이며, 대지주 양반출신인 윤두서 개인의 신분적 성향에서도 기인할 것이다.

풍속화가의 자리를 후배에게 넘겨준 윤두서

이런 경향은 전반적인 윤두서의 회화세계에서 몇 점 안 되는 속화의 비중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윤두서가 즐겨 다루고 당대부터 높게 평가받았던 전형적인 도석인물화나 산수, 산수인물이 당대 사대부 층의 성리학적 풍류의 사상의식을 담은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윤두서의 민중 생활도나 일상적 주변에서 선택한 소재의 경우를 보아도 화본풍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김광국이 <돌 깨는 석공> 그림에 윤두서를 조영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쓴 발문은 생각하게 하는 바가 크다¹⁸⁾.

오른쪽 석공의 돌 깨는 모습을 그린 그림은 바로 공재 윤두서의 솜씨로, 세속의 모습을 담았기에 '속화(俗畵)'라 불린다. 그런데 사실 묘사의 형사(形似)를 터득함에는 관아재 조영석에게 한 수 사양해야 할 것이다.

윤두서의 풍속화 중 현재 전해오는 작품은 통틀어서 10여 점 이내이며, 본격적인 속화를 엄격히 구별해내면 <돌 깨는 석공> <목기 깎기> <나물 캐는 두 여인> 정도로 압축될 것이다. 게다가 이들 작품의 경우도 중국에서 전래한 화보를 통하여 그림 그리는 법을 습득한 잔영이 뚜렷한 데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50대가 되기 이전에 세상을 떠나버려, 완성된 속화의 조선풍과 예술성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남태응이 "윤두서는 그 재주를 다했고 그 기술을 끝까지 다하였기에 묘(妙)하기는 하나 난숙함은 조금 모자랐다"고 평가한 점을 공감케 한다¹⁸⁾. 그러나 윤두서는 성리학적 이념에 묶여 있던 사회나 그 자신이 지닌 보수적 한계의 견고한 틀을 깨고 '속화'의 길을 터 선구적 자취를 분명히 남겼다. 그의 업적은 당시 조선사회의 시대상에 비추어 가히 혁명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윤두서의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작업이 있었기에 18세기에 조영석이나 다른 선비화가들뿐만 아니라 화원에게까지 '속화'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었고, 조선적 양식의 풍속화가 완성될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윤두서를 배운 조영석, 김두량, 강희연 등에서 김홍도로 이어지는 확산 과정이 그 사실을 입증해 준다.

또 회화사적 위상을 차지하더라도 윤두서의 실사구시적 학문태도는 절친했던 성호 이익, 외증손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강진 유배 시절에 외증조부인 윤두서의 학문과 예술을 접했던 정약용의 현실 비판적 사실주의 시문학에서, 윤두서의 시와 속화의 영향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실학적 전승관계는 김홍도, 신윤복 등 조선 후기 풍속화의 유행과도 그 시기적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윤두서가 속화에서 이룬 예술적 성과는 18세기 화가들에게 계승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물과 속화에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회화세계를 추구해간 선비화가는 그보다 18년 연하인 관아재 조영석이다. 조영석이 윤두서 그림에 질게 남아 있는 화본풍의 중국식 잔영을 떨쳐내고 직접 그릴 대상을 찾아, 현장 소묘를 한 발 더 진척시킨 점은 높이 살 만하다. 이는 '속화'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조영석의 업적이다.

4. 윤두서에 이은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祐)의 풍속화

윤두서에 이어 18세기 초반 화단에는 풍속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사실주의 회화 경향

18) 이태호, <돌깨는 석공>의 도판해설, 이태호·유홍준, 앞의 책.

19) 남태응, 앞의 책.

이 뿌리를 내렸다. 실제 조선 땅을 대상으로 삼은 '진경산수'가 검재 정선에 의해 완성되었고, 화원들의 인물초상이나 동물화에서도 사실적 묘사 기량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17세기 말 ~ 18세기초에서 18세기 중엽 영조 시절로 내려오면서, 풍속화는 민중생활에서 사대부나 서민들의 일상을 소재로 한 경향에 이르기까지 그 표현내용이 확대되었고, 화가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 시도해보는 관심영역으로 위상을 굳히게 되었다. 이는 대상의 선택뿐 아니라 작품의 양적 증가와 사실주의적 창작방법의 발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풍속화의 발달 과정은 윤두서와 18년 후배인 조영석을 비교해보면 잘 드러난다.

18세기 초반 풍속화의 발전 과정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있지만 속화에 관심을 두었던 윤두서와 조영석은 사뭇 다른 면모를 보인다. 우선 태어난 시기로 보면 18년 차이가 나지만, 죽은 해로 보면 조영석이 반세기를 더 살았기에 18세기 사회변동의 폭을 더 넓게 경험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신분면에서는 윤두서는 정계에서 소외된 남인계 재야 지식인이고, 조영석은 노론계로 관료생활을 했던 선비화가라는 점이 크게 다르다.

관아재 조영석(1686~1761)이 정권 근처의 전형적 지식인이면서도 당대 풍속과 민중 삶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 몇 가지에서 찾아진다. 우선 대과(大科) 급제 없이 관계로 진출한 탓에 정계의 핵심에서 한 발 벗어나 있었다. 그런 데다 36~37세 때인 1721~22년 왕세자 책봉을 놓고 소론(경종 추대)에 노론(영조 추대)이 밀리는 신임사화(辛壬士禍) 바람에 스승인 이희조(李禧朝)가 영암으로, 큰형 조영복(趙榮福)이 선산으로 유배되고 후원세력인 김창집(金昌集) 등이 사사(賜死)되는 수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더욱 과거나 중앙 정계 진출을 멀리하고 문예와 서화에 관심을 쏟았는지도 모른다. 또한 조영석은 하급 관료로 재직시 어진(御眞)제작에 참여하라는 제의(1735, 1748)를 거부하여 사대부적 자존심을 고수했고, 선비화가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에 재야의 윤두서와 함께 조선 후기 풍속화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회화에 대한 태도나 예술가적 고집은 문집 『관아재고(觀我齋稿)』에 잘 나타나 있다.

두 사람의 비교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사실주의적 창작태도의 발전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윤두서는 모델을 세우거나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깊이 관찰하여 그 진형(眞形)을 터득하여 붓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가 남긴 몇 점의 풍속화를 보면 현장감보다는 관념적이고, 화보풍의 잔영이 짙다. 그러한 점은 현실인식보다 고전을 통해 '실득(實得)'하려는 창작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하여 조영석의 풍속화는 윤두서의 그것보다, 또 자신의 인물화나 산수인물화보다 회화적인 형식미는 떨어지지만 주변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선택하여 직접 '실득(實寫)'하는 태도를 지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작태도의 변화, '실득(實得)'에서 '실사(實寫)'로

조영석이 풍속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짐작케 하는 글로는 19세 때 쓴 <청명상하도

발(清明上河圖跋) > 이 있다²⁰). 이 글은 명나라 화원화가 구영(仇英)이 그린 <청명상하도>에 감명하여 쓴 발문인데, 화면에 등장한 인물의 숫자까지 다양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중국 송나라의 도시풍속이 담긴 이 그림을 통하여 조영석은 일찍이 회화의 사회적 효용성과 유익함을 간파하였다. 조영석은 “산천초목, 인물이나 옛날과 지금의 의관과 생활용기와 사회법도에도 밝고 능통해야 좋은 그림이 되고 유용한 기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관아재고』策題)라거나, 그림의 묘리에 대하여 “그림을 보고 그림을 옮겨 그리는 것은 잘못이며 대상을 직접 보고 그려야만 (卽物寫眞) 살아 있는 그림이 된다”(홍계능, 「관아재 행장」)고 하는 분명한 사실주의적 회화 인식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는 진경산수의 확립과 함께 조선 후기 사실주의 회화의 발전상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현실문제에 대한 수용의 폭이 커진 당대의 정치사상이나 지배층의 의식 변화와 맞물려 문예 전반에 걸쳐 확산된 창작태도이다. 조영석은 자신의 사실주의론을 당대의 현실이 담긴 풍속화로써 구현해낸 것이다.

조영석은 본관이 함안(咸安)으로 자는 종보(宗甫), 호는 관아재.석계상인(石溪山人)이라 하였다. 28세(1713) 때 진사가 되어 33세 때부터 장릉참봉(1718).백천군수(白川郡守) 등 내외직 관료생활을 하였고, 71세 때는 수직(壽職)으로 첨지중추부사.돈령부도정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 있었기에, 문예활동과 예술사상의 깊이를 지니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조영석은 송시열 일파인 노론 낙론계(洛論系) 유학자 이희조(李禧朝)의 제자이다. 조영석은 같은 계열의 김창협(金昌協).창흠(昌翕) 형제의 영향을 받았고, 인왕산 아래 모인 시인 이병연(李秉淵;1671 ~ 1751), 화가 정선 등과 함께 이른바 ‘백악사단(白岳詞壇)’ 혹은 ‘백악예원(白岳藝苑)’의 일원이었다²¹). 시서(詩書)와 문장에도 일가를 이루었고, 친구이자 뛰어난 실경산수화가인 정선과 비교하면서 “산수는 정선이 한수 위지만 핏진하고 정교한 인물화의 경우는 내가 더 낫다”고 스스로를 말할 만큼 선비화가로서의 자부심도 컸다²²). 조영석이 화가의 길에 들어서면서 겪은 자신의 갈등과 자부심에 대한 심경은 아래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선비화가로서의 기량과 풍속화에 대한 평가는 이규상(李奎象)의 『일몽고(一夢稿)』에 적절히 피력되어 있다.

.....어릴 때 그림을 그린 것은 성벽(性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중년에는 질병으로 뜻을 둘 곳이 없어 때때로 시험삼아 그려 심심풀이를 하였다. 드디어는 그림 때문에 늙은 몸에 해를 입게 되었으니 어찌하오리²³).

조영석은.....화원체의 묘사기능을 갖추고 선비 그림의 정치함을 펼쳐내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은 식견이 높고 형상 표현의 정확성이 빼어나 천지자연의 조화에 버금간다.....또 오늘날의 세속을 그렸는데, 그 대상을 빼어박은 듯 닮아 있다.....당시

20) 조영석, 『觀我齋稿』.

21) 최완수, 「검재 진경산수화고」 상.중, 『간송문화』21.29호, 1981.1985.

22) 沈濬, 『松泉筆談』.

23) 조영석, 「漫錄」, 『관아재고』.

사람들의 복식이라든지 신운(神韻)이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데 터럭 하나 틀림이 없었다²⁴⁾.

조영석의 풍속화는 당대에 화본으로 제작될 정도로 유명했고, 70여 점의 모사그림에 대한 화평도 전해온다²⁵⁾. 다만 이러한 유명세와 달리 풍속화가로서 조영석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작품이 극히 적어 아쉽다. 최근에 문집 발간(『관아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과 함께 가진 작품전(동산방화랑, 1984)을 통해 소개된 개인 소장품『사제첩(麤臍帖)』²⁶⁾과 한 연구자의 작가론으로 그 위상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게 되었다²⁷⁾.

지금까지 밝혀진 조영석의 풍속화로는 <장기두는 사람들(賢己圖)>과 <절구질 하는 여인(村家女行)> (이상 간송미술관 소장), <노승과 사미승(老僧携杖)> <말 징 박기>(이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장기도 초본>(개인 소장), <농경도>(전남대박물관 소장)과 『사제첩』 가운데 포함된 <바느질> <새참> <수공선차도(手工旋車圖)> <작두질> <마굿간의 마동(馬童)> <젓 짜는 어미소와 송아지> 등이 있다. 현존하는 이들 풍속화는 <장기도>와 <농경도>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묘품의 밑그림이다. 당대의 일반적인 수묵이나 수묵담채의 회화형식으로 보면 색다른 풍모를 지닌 것인데, 연대가 밝혀진 사례가 전혀 없다. 민중 삶과 일하는 모습을 담은 '속화(俗畵)'의 매력은 『사제첩』의 그림들과 <말 징 박기> 등에서 살필 수 있으며 『사제첩』의 여타 마구간이나 소, 개, 닭 그림 등 동물 소묘에서도 풍속화적 현장 묘사의 맛이 물씬 난다. 이 외에 <설중방우도(雪中訪友圖)>(개인 소장), <이 잡는 노승>(개인 소장), <휴식하는 노승>(간송미술관 소장) 등에서도 풍속화적 요소를 엿볼 수 있다.

조영석의 소묘를 모은 『사제첩』은 시인 이병연의 발문을 쓴 화첩이다. 발문의 내용을 볼 때 "어진 제작의 거부(1748)로 왕의 노여움을 산 뒤 조영석의 그림이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이 그림을 모아 화첩을 만들고 조영석 스스로 '사제첩'이라 이름지었다"고 하였다. 이 화첩의 표지에는 '사향노루의 향기 나는 그림'이라는 뜻의 '사제(麤臍)'의 제목을 쓰고 "남들에게 보이지 말라, 이를 범한 자는 내 자손이 아니니라(勿示人 犯者 非 吾子孫)"라는 금기의 엄명을 덧붙여놓았다. 이는 조영석의 당대 현실풍속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강한 관료 의식에서 나온 글귀이다. 특히 남에게 보이지 말라는 당부는 봉건사회의 선비관료가 서민층의 일상을 다룬 것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염두에 둔 것이라 여겨진다.

남에게 보이지 꺼려한 민중 삶의 향기

이 화첩의 작품 중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바느질>하는 장면과 농부들의 <새참>먹는

24) 이규상, 『畫廚錄』, 『일몽고』.

25) 이덕무, 『靑莊館全書』.

26) 이태호·유흥준, 「관아재 조영석의 회화」, 『관아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유흥준, 「조선후기 풍속화의 한 선구-관아재 조영석의 예술의 재조명」, 『공간』, 1985. 1

27) 강관식, 「관아재 조영석 畫學老」 상.하, 『미술자료』44.45, 1989.1990.

장면은 소묘품이면서도 호분과 채색이 가해져 비교적 회화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새참>은 김홍도의 풍속화첩(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 들어있는 같은 주제의 그림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조영석이 일렬횡대식으로 배열한 데 비하여 김홍도는 원형구도로 부감하여 포착한 점이 다르다. 김홍도의 그림이 식사장면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여 회화적 발전을 보여준다.

한 여름 나뭇가지에 옷을 벗어 걸쳐놓은 채 선반 작업에 열중해 있는 두 장인을 담은 <수공선차도>는 옷의 회청색 음영이나 피부의 담홍색이 연녹색 잎의 나무와 잘 어울린다. 구유와 기둥 뒤로 세 필의 말을 그린 <마굿간> 역시 가벼운 설채 효과를 보여 주는데, 조영석의 빼어난 색채감각을 느끼게 해준다. <작두질> <마굿간의 마동> <젓짜는 어미소와 송아지> 등과 동물화는 더욱 간소한 소묘풍이다.

화첩 가운데 일렬횡대로 <바느질>하는 세 여인의 정심한 표정, 두세 명씩 마주하여 <새참> 먹는 농부들의 건실한 모습, <수공선차도>의 어깨를 바짝 올리고 피대 돌리는 사람과 고개를 오른쪽으로 바짝 제끼고 칼을 갖다 댄 장인의 익살스런 자세, 여물통 앞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 있는 <마굿간의 마동>, <작두질>하는 모습을 힐끗 쳐다보는 말의 표정, <젓 짜는 어미소와 송아지>에서 송아지를 붙든 사람의 엉거주춤한 자세와 고삐를 쥐고 빙그레 웃는 사람의 표정 등 그야말로 땀내음 나게 일하는 모습들에 정감이 폭 배어 있다. 유탄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조심스런 선묘와 담채로 처리한 소묘풍의 표현 기법은 초본처럼 보이면서도 민중 삶의 꾸밈없고 질박한 정서를 우려내기에 적절한 방식이다.

조영석의 특징적인 속화 수법은 <절구질하는 여인>과 <말 징 박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두 작품은 <수공선차도>에서처럼 배경의 나무와 집 모퉁이를 그려 넣어 소략하나마 현장감을 돋우었다. 나목(裸木)과 갈색 말을 가마니 위에 눕혀 묶어놓고 요동치는 말의 움직임은 조절하며 앞발의 편자에 못을 박는 인물의 야무진 표정, 그리고 절구에 고추방아를 찜으며 잔뜩 허리를 굽힌 여인의 동세는 생동감이 넘친다. 이런 표현력은 <절구질하는 여인> 그림의 화면 왼편에 “관아재의 필법은 대양 신묘(神妙)한 경지에 들어가니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쓴 운수도인(雲水道人)의 칭찬을 수긍케 한다. 특히 긴 저고리에 쪽물 치마를 입은 노동복 차림의 <절구질하는 여인>에서 벗짚 이엉을 올린 부엌과 나무의 일부만을 묘사하고 빨랫줄에 저고리를 배치한 점은 수평과 수직의 정갈한 공간 운영과 함께 풍속화가 조영석의 삶의 현장을 읽는 진면목과 탁월함을 실감하게 해준다. 마치 박수근의 그림을 연상시켜 주듯, 현대적인 감흥마저 물씬 감돈다. 그의 어리숙하면서도 투박한 선 맛이나 동세 묘사의 정확한 표정 연출은 <노승과 사미승>에서도 찾아진다.

조영석의 본격적인 농촌 풍속도는 아직 세상에 널리 공개되지 않은 전남대박물관 소장의 <농경도>이다²⁸⁾. 농촌 마을 풍속을 담은 이 작품은 아래쪽에 쟁기질하는 농부와 쇠스랑으로 땅을 고르는 두 아이를 배치하고, 언덕 위 나무 그늘에 시동을 데리고 농사일을 구경하며 앉아 있는 선비 지주를 그려 넣었다. 그 위로 낚시꾼과 개울 다리를 건너려는 지게 진 아이와 강아지를 배치하였고, 멀리 산곡에는 초가 지붕을 고치는 풍경도 보인다.

28) 전남대학교 박물관, 『남강 최상채 박사 기증품 도록』, 1987.

태점을 찍은 산과 짧은 붓질의 나뭇가지에는 봄기운의 연푸른 담채가 얹혀 있다. '조영석인(趙榮祐印)'과 '종보(宗甫)'란 도인만 찍힌 이 작품은 실경사생의 풍속도라기보다 '경직도'나 '빈풍칠월도'류의 내용과 연결되며, 수법 역시 그 그림들과 흡사한 조심스런 인물묘법이 눈에 띈다. 이 그림의 인물과 나무, 언덕의 필치는 김홍도의 화풍과도 연결되어 주목된다.

현존하는 작품 말고도 조영석의 속화는 폭넓은 내용을 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조영석의 풍속화첩을 보고 쓴 <흙담 쌓기> <조기장수> <미장이> <통 때우는 장인> 등이 있고, 이규상의 『일몽고』에 소개된 '오동나무 아래 다듬이질하는 젊은 아낙'과 '땀나무를 실은 말을 몰고 가는 전립 쓴 사람'의 사례가 있다.

조영석의 속화들은 가벼운 선묘와 담백한 설채가 날고기 같은 소묘풍이면서도 민중생활의 순박하고 우직스런 감정들을 유감없이 실어내었다는 점에서 그의 개성미와 예술적 탁월함이 돋보인다. 것처럼 대상을 진솔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시 직접 사물을 대하고 실사(實寫)한 '즉물사진(卽物寫眞)'의 창작태도에서 나온 결과이다. '회화란 형상을 제대로 닮게 그려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식과 사회제도, 생활기물까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그의 회화신념처럼, 여러 인물들의 복식과 각종의 연장들에 이르기까지 정확성을 기하려는 세심함이 구석구석에까지 미쳐 있다. 특히 여인들의 허리춤까지 내려온 저고리의 모습은 윤두서의 풍속도에 나타난 그것과 다르지 않아서 아직 변화가 크게 일지 않은 복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어진 제작에 발탁될 정도의 빼어난 인물 묘사 솜씨는 친형을 그린 <조영복 초상(趙榮福 肖像)>(172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비교적 거의 같은 시기의 것으로 여겨질 만큼 유사한 표현방식을 지니고 있다. <작두질>하는 사람의 전립 쓴 복장이나 <젓 짜는 어미소와 송아지>의 갓 쓰고 포를 입은 인물들, 망건을 쓰고 말 징 박는 인물 등은 지방 관아에서 벌어진 풍경을 그린 것 같기도 하다. 30~40대 하급관료와 고을 현감을 지내면서 그가 만난 생활풍속을 중심으로 그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그림들에서 조영석 말년의 무르익은 필치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렇다. 이들 풍속화의 직선적이면서 소략한 선묘법과 설채법은 38세(1723) 때 작품 <선유도(船遊圖)>(개인 소장)와 가장 근사하다. <선유도>는 신입사화를 겪은 직후 관직을 떠나 원주로 가는 심경을 읊은 칠언시와 함께 표장된 것인데, 뱃사공과 마주한 두 인물의 간소한 의습처리와 풍경묘사, 시원한 화면 운영법에서 그 같은 면모가 읽혀진다.

사대부들의 일상생활상도 그려

민중의 삶과 일하는 모습을 작품화하는데 성공한 조영석은 자신의 신분과 어울리는 생활 소재에도 눈을 돌렸다. <장기 두는 사람들>과 <설중방우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기 두는 사람들>은 그림의 화제를 '현이도(賢己圖)'라 했듯이 '배불리 먹고 노느니 바둑이나 장기 두는 게 낫다'(『논어(論語)』)라는 유생의 여가생활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작

품은 조선 후기 수장가인 김광국(金光國)의 『석농화첩(石農畵帖)』에 들어 있던 것으로 김광국의 발문 두 폭이 함께 있다. 비단에 그린 사인풍속도(士人風俗圖)로서 섬세한 돛자리의 규칙적인 붓질과 담채 효과가 시원스런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다. 소나무 그늘에서 장기 두는 두 사람의 표정과 자세, 그에 동조하는 구경꾼의 호기심 어린 몸 동작 등 풍속화가다운 장면 포착이 정겹다. 또 그 장면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 부감한 화면의 구성은 조영석 회화의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해준다. 이 방식은 일렬횡대식 구성의 <새참> 장면과 잘 비교되는데, 한층 발전된 공간구성으로 김홍도 인물 구성법과 연계되는 형식이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두 인물의 <장기>(개인 소장) 수목 소묘도 전해온다.

<설중방우도>는 방안에 복건을 쓴 주인과 방한모를 쓰고 갓을 걸친 손님을 그리고, 문밖에는 소와 두 시동의 만남을 그린 것으로 다분히 풍속화적이다. 물론 주변 수목과 설산 풍경에서는 전통적 산수인물화의 구성법이 보이지만, 각 인물들과 풍물의 정확한 묘사를 통해 풍속화적 작품으로 훌륭히 재해석해 놓았다. 나무와 산경 처리에 젊은 시절 화보를 통해 익힌 필묵법의 잔영도 조영석의 개성미에 감추어져 있다.

이 두 작품과 함께 앞이 무성한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 잡는 노승>과 지팡이에 기댄 채 노승 등치 위에 앉아 <휴식하는 노승>은 은일자적하는 소재이면서도 현실감 나는 의습 처리와 표정이 풍속화적이다. 이러한 풍류적 소재의 작품들은 모두 조영석의 50대 이후 말년 작으로 추정된다. 조영석이 말년에 즐겼을 법한 탈속한 정서와 무르익은 회화성으로 인해 앞서 살펴본 풍속도들보다 한층 성숙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속화에 눈 뜬 30~40대의 현장감은 약해졌지만, 50대 이후의 회화성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풍류생활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룩된 것이다. 이런 경향성은 말년 작으로 추정되는 <고목도> <게> <까치 그림>(이상 개인 소장) 등 담백한 소품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결국 조영석의 민중성 퇴조는 조선 후기 정치권력층과 가까웠던 관료 지식인으로서 신분적 한계를 스스로 노정 한 것이다.

마치며

윤두서와 조영석의 '속화' 그림에서 민중의 삶을 예술적 주제로 끌어들이고 직접 사생을 통해 진전시킨 회화적 업적은 동시기 정선의 진경산수 못지 않다. 특히 민중 삶에 대한 관심을 사실주의적 창작태도로 구체화한 점은 보다 근대적 성향에 가깝다. 또 이를 토대로 18세기 후반~19세기 초 회화적 기량을 충실히 갖춘 화원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의 풍속화의 질적 발전이 가능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도 그러하다. 윤두서를 학습한 윤용과 강희연, 김두량에 이어 조영석의 <새참>이나 <농경도>는 김홍도의 같은 주제 그림에, <바느질>은 신윤복의 유사한 여속(女俗) 주제와 연계된다. 특히 조영석의 <장기 두는 사람들>에서 현장감 있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부감한 대각선이나 원형의 구도, 배경 없이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묘사한 화면구성법은 18세기 이후 일반화되는 풍속도의 형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형식상의 문제에 앞서 윤두서와 조영석의 풍속화는 동료나 후배 선비화가에게는 물론 18세기 중 후반 중인층이나 화원화가에까지 회화적 표현 대상으로 현실 소재를 보편화시켰다는 데 일차적 의미가 있겠다. 특히 조영석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은 민간 생활에 관한 그림을 남에게 보이기 꺼려했지만 결국 진보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많은 화가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윤두서의 '실득(實得)'에서 조영석의 '즉물사진(卽物寫眞)'으로 사생적 태도의 발전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사실주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생을 통한 창작태도는 생활 체험 속에서 만난 시정 잡사로까지 다양한 소재의 확산을 가져왔고, 또 직접 현장소묘를 통하여 대상을 해석하는 화가들의 개성미가 자연스레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 후기의 새로운 문화사조를 인식하게 하는 인간에 대한 진보적 사회사상을 반영한다.

18세기 초반 윤두서와 조영석에 이어 개성미와 현장 사생의 참신함을 살린 화가로는 오명현(吳命顯)과 윤용(尹容)을 들 수 있다. 또한 18세기 후반-19세기 초 김홍도·김득신·신윤복 등의 풍속화가 조선 후기 회화의 꽃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18세기 중반의 여러 화가들에 의해 징검다리가 마련된다. 정선·심사정·이인상·강세황 등의 사인풍속과 김윤겸(金允謙)·강희언·김두량 등 중인층 화가의 풍속도가 좋은 사례이다²⁹⁾.

29) 이태호, 「조선후기 풍속화의 발생과 문인화가의 속화」,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1996.

제2강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

정 창 권
고려대 교수



차례

- ❖ 조선은 집안 중심 사회였다
- ❖ 성별 역할이 고정화되지 않았다
- ❖ 군관 나신걸의 한글편지
- ❖ 살림의 달인, 퇴계 이황
- ❖ 요리하는 조선 남자들
- ❖ 외조하는 남자들
- ❖ 다시, 남녀 공존의 역사를 쓰자



조선은 집안 중심의 사회였다

- 양반 집안 = 중소기업체
- 의식주, 교육, 의료, 복지, 종교 ...
- 부부싸움의 큰 원인
- 충<효, 수신제가치국평천하



<행려종속도병>, 국립중앙박물관



성별 역할이 고정화되지 않았다

- 여성 : 임신과 출산, 음식, 의복 등 안살림
- 남성 : 생계활동, 재산증식, 노비관리,
 봉제사 접빈객, 자식교육, 정원 가꾸기, 외조
- 성별 역할 구분은 일체의 산물!
 현모양처의 진실



<신사임당 표준영경>

집에도 다녀가지 못하니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 현존하는 최초의 한글편지 : 1490년대
- 군관 나신걸이 갑자기 전근을 가며 아내에게 쓴 편지
- 조선 남성들의 살림참여 전통 : 농사, 노비관리, 세금납부
- 아내에 대한 존경과 사랑 : 경어체, 애정표현, 명품선물



<나신걸의 한글편지>

논밭은 다 소작을 주고 농사짓지 마소. 내 철릭 보내소. 안에다 입세. 못논(泔) 모래 든 데에 가래질하여 소작 주고 절대 종의 말 듣고 농사짓지 마소. 내 헌 비단 철릭은 기새에게 주소. 그 옷을 북경이한테 입혀 보내네. 가래질할 때 기새 보고 도우라 하소. 가래질을 다하고 순월이는 내어 보내소. 부리지 마소. (.....)

분과 바늘 여섯을 사서 보내네. 집에도 다녀가지 못하니 이런 민망(안타까운)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울고 가네. 어머니와 아기를 모시고 잘 계시오. 내년 가을에 나오고자 하네.

<나신걸의 한글편지> 중 일부

살림의 달인, 퇴계 이황

- 조선 성리학의 확립 : 천원 지폐 인물
- 퇴계의 부인은 과연 누구?
- 3,000통이 넘는 편지를 쓴 이유
- 편지로 안팎의 살림주관 : 안살림, 농사관리, 노비관리, 재산증식, 자식교육



<이황 표준영정>

나는 두 번 장가를 들었는데 하나같이 아주 불행한 경우를 만났지. 이러한 처지에서도 나는 감히 박절하지 않고 애써 아내를 대해준 것이 수십 년이었네. 그동안 마음이 몹시 괴로워 견디기 어려운 적도 있었네. 그래도 어찌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 부부간의 큰 인륜을 무시하고 홀어머니께 걱정을 끼칠 수 있었겠는가.

<제자 이함형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

선비란 모름지기 용모는 소탈하고 우아하며 고요하고 담백해서 욕심을 적게 가지도록 한 뒤에 생업을 도모한다면 어떤 해로움도 없을 것이다.

<큰아들 이준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

특히 재산을 경영하는 일은 정말 사람으로서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내가 비록 평생 그런 일에 멀리하고 서툰 것 같지만 또한 어찌 완전히 하지 않기가 했겠느냐? 다만 안으로 학문하는 마음을 오로지 하고 밖으로 모든 일에 응하면 선비의 기품을 떨어뜨리지 않아 해로움이 없게 된다. 만약 학문하는 마음을 잇고 오로지 경영에만 몰두하면 이는 농부의 일이며 시골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기에 이르고 이를 뿐이다.

<큰아들 이준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

요리하는 조선 남자들

- 전문적인 남자 요리사들 :

<대장금>은 가짜였다!

궁중 요리사 : 사옹원 숙수(熟手)

각 관아의 칼자(刀子)

- 뛰어난 남자 요리사들 :

이교(세종대)

이인수(태조의 전속 요리사)

영조의 연잉군 시절

연암 박지원

달성서씨 남자들(서명응, 서유구)



<대장금>의 요리장면.



<사옹원 숙수들>,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고추장 작은 단지 하나 보낸다. 사랑방에 두고서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을 게다. 내가 손수 담근 건데, 아직 푹 익지는 않았다.

보내는 물건: 포(脯) 세 첩, 꽃감 두 첩, 장볶이(볶은고추장) 한 상자, 고추장 한 단지

<안의현감 시절 연암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 1>

전후에 보낸 쇠고기 장볶이는 잘 받아서 아침저녁 반찬으로 먹고 있지? 왜 한 번도 좋은지 나쁜지 말이 없니? 무심하다, 무심해. 나는 그게 포첩(말린 고기)이나 장조림 같은 반찬보다 나은 듯하더라. 고추장 또한 내가 손수 담근 것인데, 맛이 좋은지 어떤지 자세히 말해주면 앞으로 계속 두 가지를 인편에 보내든지 말든지 하겠다.

<안의현감 시절 연암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 2>

요리하는 조선 남자들

- 남자들의 요리책 쓰기 :

전순의 『식료찬요』, 김유 『수운잡방』,
허균 『도문대작』, 유만주 『저경』,
서유구 『정조지』

* 여성들의 요리책 : 장계향 『음식디미방』,
이빙허각 『규합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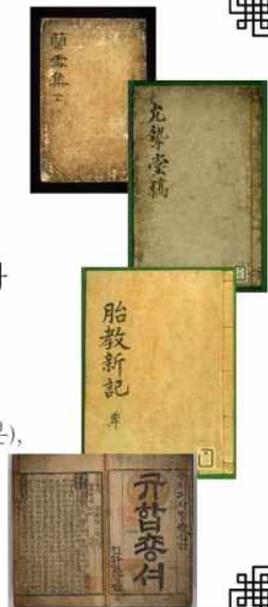
외조하는 남자들

- 내조와 외조의 차이

- 조선시대 가부장제 강화와 외조하는 남자들의 본격 출현

- 현존하는 여성 문집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에 의해 편찬되었다

『덕봉집』(남편 유희춘), 『난설헌집』(남동생 허균), 『매창집』(부안아전들),
『윤지당유고』(남동생 임경주), 『정일당유고』(남편 윤광연),
『태교신기』(아들 유희), 『영수합고』(아들 홍석주), 『규합총서』(남편 서유분),
『정일헌시집』(양자 성태영)



외조하는 남자들

- 아내는 나의 멘토였다 : 윤광연-강정일당(강지덕)
- 여성 성리학자 : ‘하늘에서 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의 차이가 없다’
- 척독(쪽지편지)의 힘 : 성품, 생활습관, 스승과 인간관계, 학당일 조연
- 윤광연의 『정일당유고』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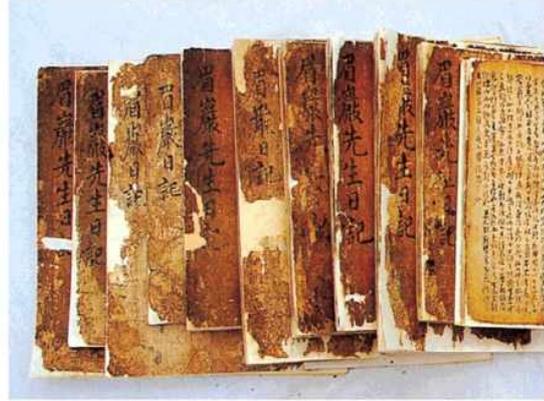


『주역』에서 “음식을 절제하라.” 하였으니, 술은 음식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술을 절제하여 덕을 쌓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무슨 일로 사람을 그리 심히 꾸짖었는지요? 과중한 책망이 아닙니까? 안색이나 언어는 군자가 더욱 마땅히 수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남에게 따듯하고 공손함이여. 아, 덕성의 바탕이라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남을 심히 꾸짖을 때는 자못 온화한 기운이 없으므로 감히 아웁니다.

<강정일당이 남편 윤광연에게 보낸 쪽지편지>

다시, 남녀공존의 역사를 쓰자

- 요즘 젊은 층의 젠더갈등
- 남자의 일-가정 양립:
조선 남자들의 일기쓰기
- 한국은 원래 남녀 공존의 나라였다



제3강

고봉, 퇴계와 '편지'를 통해 뜻을 통하다

이 향 준
전남대 교수

무엇이 허균(許筠, 1569-1618)을 탄식하게 했는가?

"정릉(靖陵: 중종) 시대에 드러난 호남의 인재들이 매우 많았다. 놀재 박상 형제, 사인 최산두, 미암 형제, 교리 양팽손, 제거 나세찬, 목사 임형수, 하서 김인후, 석천 임억령, 삼재 송순, 찬성 오겸 같은 이들은 그 가운데 가장 저명한 이들이었다. 그 후 사암 박순, 일재 이항, 송천 양응정, 고봉 기대승, 제봉 고경명 등이 학문이나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재행으로 당대에 드러난 이가 한 사람도 없고, 과거에 등제하는 이들도 점점 드물게 되었으니 그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

「湖南人才之浮沈」

어느 특별한 시대?



면앙정, 필암서원, 소쇄원, 율봉서원

최부(崔簿, 1454-1504)

양산보(梁山甫, 1503-1557)

유희춘(柳希春, 1513-1577)

고경명(高敬命, 1533-1592)

송순(宋純, 1493-1583)

이항(李恒, 1499-1576)

김인후(金麟厚, 1510-1560)

기대승(奇大升, 1527-1572)

16세기 호남문화의 황금기(Golden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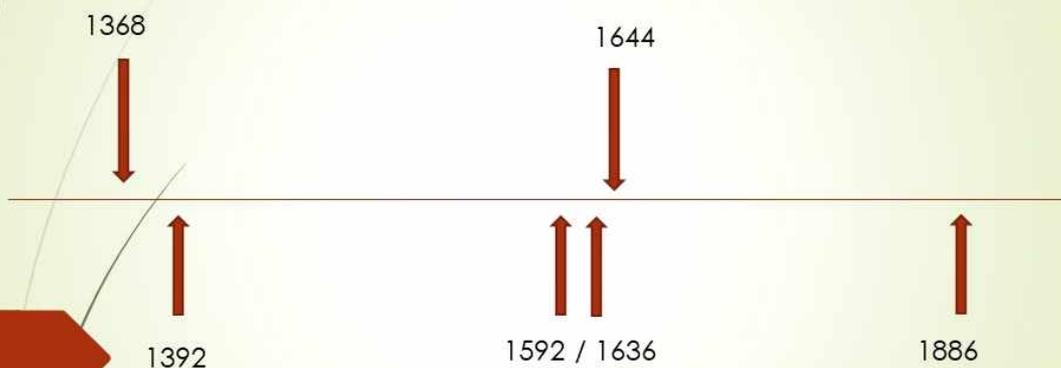
호남 만의 현상이 아니다

정암 조광조 :	1482-1519
학포 양팽손 :	1488-1545
복재 기준 :	1492-1521
면앙정 송순 :	1493-1583
퇴계 이황 :	1501-1570
소쇄옹 양산보 :	1503-1557
하서 김인후 :	1510-1560
미암 유희춘 :	1513-1577
사암 박순 :	1523-1589
회재 박광옥 :	1526-1593
고봉 기대승 :	1527-1572
제봉 고경명 :	1533-1592
율곡 이이 :	1536-1584
송강 정철 :	1536-1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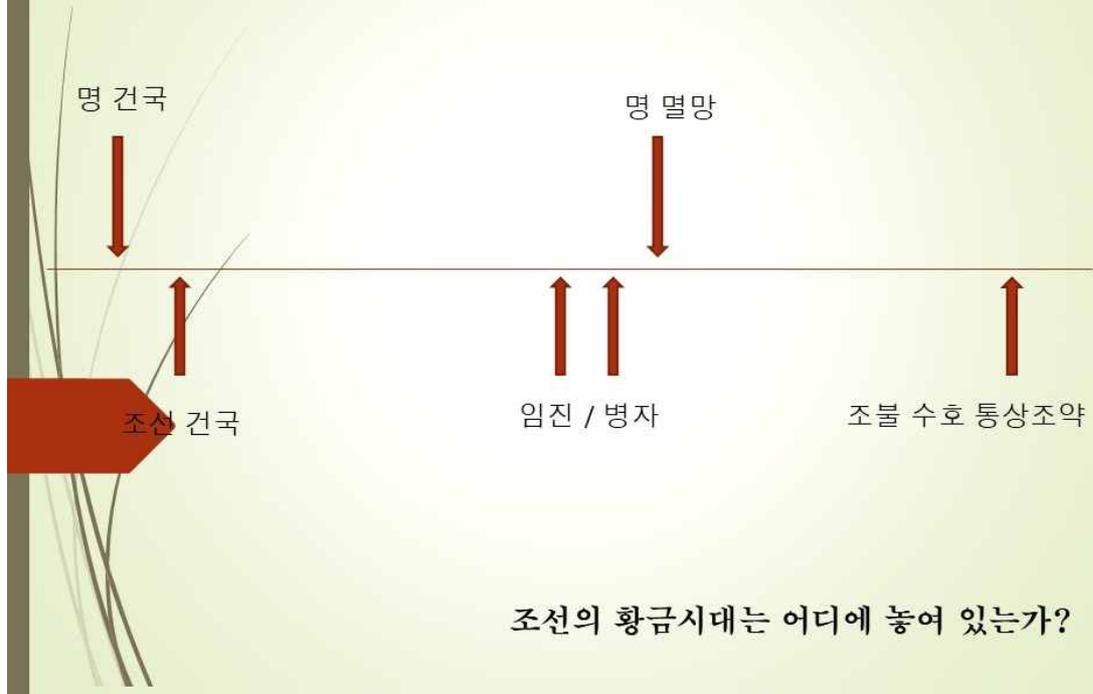
16세기 호남을 위한 연대기

- ▶ 1368 : 명나라 개국
- ▶ 1392 : 조선개국 및 고려말 왜구 소멸
- ▶ 1519 : 기묘사화, 중종반정공신 위훈삭제
- ▶ 1589 : 정여립 역모 사건, 기축옥사
- ▶ 1592 : 임진왜란
- ▶ 1597 : 정유재란
- ▶ 1627 : 정묘호란
- ▶ 1636 : 병자호란
- ▶ 1644 : 명나라 멸망

무엇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질서



조선의 황금시대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유교진리국가로서 조선의 삼국체제

- ▶ 中國體制 : 리의 근거
- ▶ 王國體制 : 리의 상징
- ▶ 士國體制 : 리의 담지자

기대승의 시대: 1527-1572

이황-기대승(奇大升)-이이

순수의 시대: 삼국체제의 가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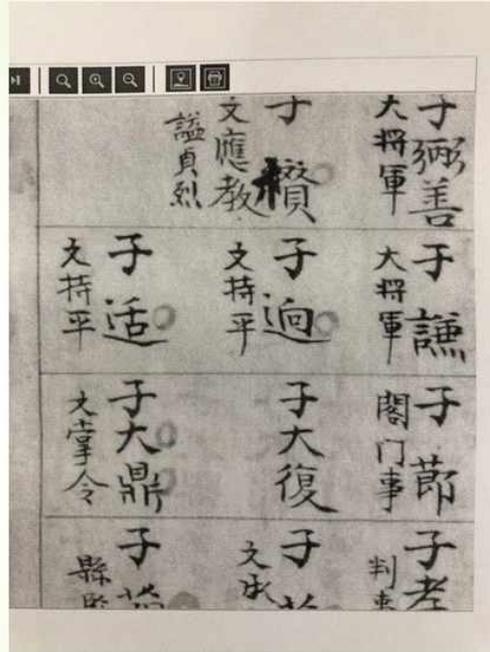


이황李滉, 1501-1570



이이李珣, 1536-1584

가계 1



기대승과 이황 1

연도	기대승	이황
1501		경상도 예안현 온계리 출생
		이식의 7남1녀 중 막내 생후 7개월 아버지 사망
1512		작은 아버지 이우에게 수학
1527	광산구 소고룡리 출생	향시 초시 합격
1528		진사 회시 급제
1534	어머니 사망	문과 급제

기대승과 이황 2

연도	기대승	이황
1537	향숙 입학	어머니 사망
1543		[주자대전] 입수
1545		을사사화, 파직 후 복직
1546	향시 진사과 합격	관직 사퇴, 토계 은거
(1548)1549	사마시 합격	단양군수, 풍기군수
1950		형 이해 사망
1950 이후		관직-복무-사퇴 반복

기대승과 이황 3

연도	기대승	이황
1555	아버지 기진 사망	상호군
1557	[주자문목] 간행	침지중추부사 사직, 귀향
1558	문과급제	[주자서절요] 서문 저술
1559-1566	사단칠정논쟁	
1560		도산서당 건립
1567	명종 승하, 선조 즉위	
1568	동부승지 직제학	판중추부사

기대승과 이황 4

연도	기대승	이황
1569		이조판서
1570	대사헌, 사직, 낙향	12월 8일 사망
1572	대사성, 종계변무사 상경 11월 1일 사망	

그들의 공통점 1: 배경

- 삼국체제의 안정기 : 일종의 순수 시대
- 사회의 그림자 : 기준과 이해의 피화
- 사림 시대의 개막기 : 중종에서 선조

참여인가? 학문인가? 1559.08.15

- 저는 본래 성품이 우활(迂闊)하여 세상과 맞지 않으므로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 숨자니 형적을 갖추기 어렵고, 힘써 벼슬에 종사하자니 심신이 모두 괴롭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등한히 할 바엔 차라리 시속에 위배될망정 제 뜻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물을 일인가?

- 출세하기 전에 일찍이 뜻을 결정하였다더라면 학문에도 전념할 수 있고 도(道)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한 세상에 도학(道學)의 깃발을 세워 우리나라의 끊어진 학통을 창도하는 자가 되는 것도 불가하지 않았을 것이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서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을 구하였으며 또 머리를 숙이고 옥됨을 참으면서 면신례(免新禮)를 행하여 놓고서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계책을 물어 물러나서 자신의 평소에 원했던 바를 마치려 하니, 사태 파악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결국, 훗날에는

- 고봉이 44세 때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한강가에 전승 나온 어떤 사람이 묻기를 “사대부가 벼슬을 하고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시종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기(幾) 세(勢) 사(死) 세 글자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는 대개 군자의 출처는 마땅히 먼저 그 기미를 살펴 의리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고, 다음은 반드시 때를 알고 형세를 살펴 구차해지는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끝으로 목숨을 걸고 도를 잘 지키기를 기약할 뿐이라는 뜻인데, 그 말을 들은 자들이 탄복하였습니다.

카톡 없는 세상의 소통 방법. 1560. 02. 05

- 지난해 초겨울에 한 통의 글을 써서 서울에 보내어 자중(子中)에게 부탁하여 자네에게 전하려고 했네. 다시 생각해 보니 자중이 사명을 받들어 의당 남쪽으로 갈 터인데 만약 이미 서울에서 출발하였다면 서로 어긋나 전달이 못 될 것 같아 시일을 끝다가 겨울을 넘겼네. 또 자중에 남쪽으로 와서는 오래도록 돌아가지 않아서 오늘에야 비로소 이 글을 전하도록 부탁했네. 또 어느 때에나 이 글이 자네에게 전해질지 모르겠네.

카톡 없는 세상의 소통 방법. 1560. 08. 08

- ▶ 4월 보름이 지나 서울서 내려온 벗 편에 비로소 자중의 편지가 전달되어 그 속에 동봉한 선생의 지난해 10월 24일의 서찰과 사단, 칠정에 대한 변 1통과 금년 중순에 발송하신 짧은 편지를 받아 재삼 읽어보고서 영체(令體) 강녕하심을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네, 1539. 01. 05

- ▶ 사우들을 통해서 자네가 논한 사단, 칠정에 대한 말을 전해 들었네. 내 생각도 이에 대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 온당하지 못함을 문제로 여기고 있던 터에 자네의 지적을 받고는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네

제 생각을 아뢰자면, 1539. 03. 05

- 사단, 칠정을 논한 것은 제가 평생 동안 이에 대해 깊이 의심해 온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의 식견이 아직도 분명치 못하고 어렴풋한데, 어찌 감히 망녕된 말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삼가 선생께서 고치신 선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 의심이 풀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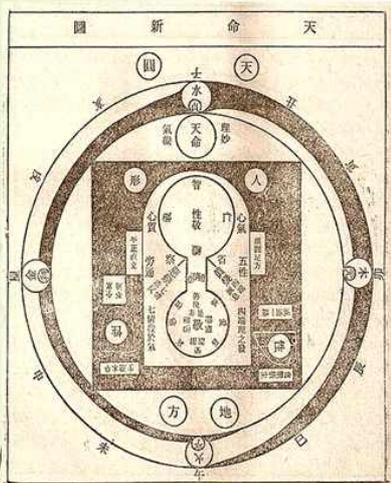
논쟁은 왜 : 유학의 오래된 갈림길

인물	맹자	순자
성	성선	성악
마음	도심	인심
감정	사단	칠정
수양	擴充	矯揉

논쟁은 왜 : 성리학적 변형

가치	선	유선유악
마음	原於性命之正	生於形氣之私
성	본연지성: 理	기질지성: 理氣合
정	사단 ?	칠정 ?
수양	發善	矯惡
내적 기초	(識)仁	智(覺)
존재	理	氣

정지운과 이황



천명구도	천명신도
四端發於理	四端理之發
七情發於氣	七情氣之發

이황의 입장변화

	사단	칠정
0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1	四端純理故無不善	七情兼氣故有善惡
2	四端理發而氣隨之	氣發而理乘之

기대승의 입장

	사단	칠정
0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다.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사단의 칠정 가운데 선한 것이다.	
1	이기불상리에 어긋난다 이기는 개념적으로는 분리가능 현실적으로는 분리 불가능하다. 칠정의 발현은 기의 과불급에 따라 선악이 나뉜다.	
2	理動氣俱 氣感理乘	



사단칠정론이란 도대체 무엇?

- 가치론 - 감정론 - 이기론
- 규범성의 내적 기초는 무엇인가?
- 인간행위에서 감정의 역할



사단칠정론의 쟁점

- 사단과 칠정의 가치론적 구획
- 이기론적 정당화
- 이기론과 가치론의 정합적 구조화

사단칠정론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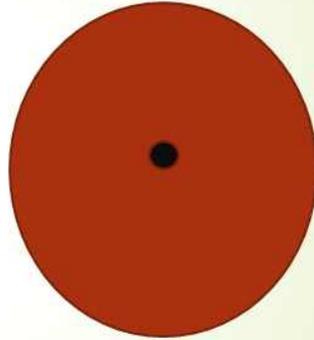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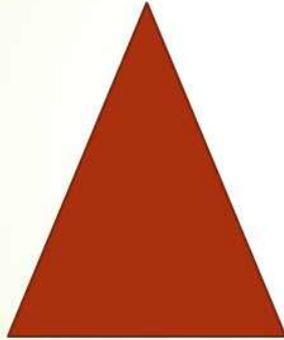
- 이기론과 감정론의 정합적 구도화 실패
- 리(理) 개념의 분화
- 이이 성리학의 독자적 구조화 파생

새로운 문제들

- 리(理)의 발(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조선사회와 리(理)의 상관 관계
- 해결되지 않는 규범성의 원천

마지막 질문 : 원뿔을 보는 두 가지 방법?

▶ 이황과 이이 : 理對氣, 혹은 王對臣



제4강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맺은 인연들

김태희

역사연구자, 전 실학박물관장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맺은 인연들

김 태 희(역사연구자, 전 실학박물관장)

왜 그의 이름이 '다산'일까?

정약용은 본명 이외에 많은 호를 가지고 있다. 잘 알려진 다산茶山 이외에, 여유당與猶堂, 열수泐水, 사암俟菴 등이 있다.

정약용 자신을 보호해주던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뜨고 나서, 정약용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스스로 지은 당호堂號가 '여유당'이다. 노자의 글 "여혜, 겨울 시내를 건너듯, 유혜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與兮 若冬涉川, 猶兮 若畏四鄰)"이란 구절에서 이름을 따왔다. 용기만 있지 지모가 없으며, 선함만 좋아했지 가릴 줄 몰라서 그만둘 일도 그만주지 못하는 것이 정약용 자신의 약점이라고 반성했다. 그래서 겨울 시내를 건너지 않듯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그만두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약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신유옥사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다.

18년의 긴 유배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에 돌아온 정약용은 '철마산초鐵馬山樵'라는 호를 썼다. '철마산의 나무꾼'이라는 뜻이다. 철마산은 고향 근처 산이다. 고향의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의 모습이 엿보인다. '철마산인鐵馬山人', '철마초부鐵馬樵夫'라고도 했다.

정약용이 자신의 글에서 '철마'보다 더 애용한 것이 '열수泐水'였다. '열상노인泐上老人'이라고도 했다. '열수'는 한강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정약용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한강이 시작되는 두물머리 근처이다(경기도京畿道 광주군廣州郡 초부면草阜面 마현리馬峴里.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남양주시南陽州市 조안면鳥安面 능내리陵內里 마재마을). 북한강, 남한강의 두 강이 산을 돌아 굽이굽이 흘러오다가 두물머리에서 합쳐져 하나의 한강이 되어 서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보면 여러 학문을 섭렵하여 집대성한 정약용의 학문은 이러한 한강의 모습을 닮았다.

정약용은 회갑 때 지은 「자찬묘지명」에서 자신의 호를 '사암俟菴'이라 했다. '사俟'는 '기다린다'는 의미다. 『중용中庸』 29장에 "백세 이후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됨이 없다"[百世以俟聖人而不惑]는 구절이 있다. 학문적 자부심일 수도 있고, 훗날 자신의 뜻을 공감해 주길 기다리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두 가지 의미 다일 수도 있다.

'다산'은 정약용이 강진 유배시절 후반 10년 동안 기거했던 곳의 이름이다. 주위에 차가 많이 자라고 있어 '다산茶山'이라고 불렀다. 후세 사람들은 왜 그의 많은 이름 가운데

‘다산’이란 이름을 주로 부르는 걸까?

유배

정조가 죽자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다. 아직 어리기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다. 정순왕후의 집안은 그동안 제대로 행세하지 못하고 탄압을 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순왕후 집안의 복수심과 조정을 장악한 노론 벽파들이 합세해 옥사獄事를 일으켰다. 이른바 ‘신유사옥辛酉邪獄’이다(1801년, 순조 1). 천주교를 사교邪敎라 하여 탄압한 것이어서, 천주교 쪽에서는 ‘신유박해辛酉迫害’라 부른다. 겉모양은 종교 탄압이지만 그 실체는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 등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신유옥사로 이가환 등이 정치적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이승훈·정약종 등 많은 천주교도가 종교적 소신으로 죽음을 당했다. 정약용은 둘째 형인 정약전과 함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천주교도라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천주교도인의 글 가운데 배교자로 취급된 글마저 나왔기 때문이다.

신유옥사로 신지도薪智島로 유배 갔던 정약전과 장기長鬐로 유배 갔던 정약용은 황사영黃嗣永 백서帛書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서울에서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겼다. 각각 흑산도黑山島와 강진康津으로 유배지가 옮겨졌다. 목숨을 건진 형제는 나란히 유배길에 올랐다. 그때가 1801년 11월 5일(이하 음력)이었다.

눈물의 생이별과 도움의 손길

두 형제는 나주까지 함께 내려왔다. 이곳 울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각자의 유배지를 향해 유배길이 갈라질 참이었다. 「울정별栗亭別」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초가 주막 새벽 등불 가물가물 꺼지려는데 茅店曉燈青欲滅
일어나 셋별 보니 이별할 일 참담해라. 起視明星慘將別
눈만 멀뚱멀뚱 두 사람은 말을 잃어 脉脉嘿嘿兩無言
애써 목청 가다듬으려니 오열이 되고 마네. 強欲轉喉成嗚咽
흑산도 아득한 곳 바다와 하늘뿐인데 黑山超超海連空
그대는 어찌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시나요. 君胡爲乎入此中

형제는 서로 손을 부여잡고 작별 인사를 했다. 신유년(1801년) 11월 22일이었다. 이후 두 형제는 살아서 다시 보지 못했다. 울정에서 이별한 지 16년째 되던 해(1816년) 6월 6일, 형 정약전은 유배지 내흑산 우이보에서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강진’이란 이름은 도강道康의 ‘강’과 탐진耽津의 ‘진’에서 따왔다. 탐진이란 제주도로 가는 나루터란 뜻이다. 강진은 남쪽 바닷가였던 것이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는 1801년(40세) 11월 23일로 추운 겨울이었다. 대역죄인이라 모두 접촉을 피하니, 인심도 겨울이었다. 이때 불쌍히 여겨 챙겨준 사람이 동문매반

가東門賣飯家 주모였다. '매반가'는 밥 파는 집을 일컫는다.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숙박업도 했을 것이다. 주모는 골방 한 칸을 내주어 정약용은 그곳에서 기거했다.

동문매반가에 기거하고 있을 때가 정약용에게 가장 어려운 때였다. 아직 몸도 마음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이 강진현감으로 이안묵李安默이 부임해 따라 내려왔다. 이안묵은 노론 벽파의 공격수로 정조가 죽은 후 정적 제거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었다. 그가 또 정약용을 물고 늘어졌다. 무고로 판명될 일이었다. 1802년 5월 무렵이었다.

이런 시련 속에서 서서히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윤시유尹詩有라는 사람이 몰래 찾아왔다. 그는 윤광택尹光宅의 조카이자 그의 아들인 윤서유尹書有의 사촌동생이었다. 이들은 정약용의 외가인 해남 윤씨에서 갈라진 씨족이었는데 강진 도암의 향촌項村에 살고 있어서 '향촌 윤씨'라고 불렸다.

윤광택은 가난하게 자랐지만 부지런히 땅을 개간하여 부자가 되었다. 자신은 벼슬을 하지 못했지만 형제와 자식들에게 학업을 권면했다. 의기를 숭상하고 호방하여 베풀기를 좋아하니 사람들은 그를 해룡공海龍公이라 불렀다.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이 화순현감으로 있을 때 처가인 해남에 내려가는 길에 윤광택의 집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었다. 이때 윤광택은 극진히 환대했다.

그의 아들 윤서유는 일찍이 서울을 왕래하면서 이가환과 정약전·정약용 형제와 친교를 맺었다. 이 때문에 그 또한 신유년에 관에 끌려가 고초를 겪다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 오기 두어 달 전에야 풀려났다. 정약용이 왔는데도 감히 방문할 수 없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윤광택은 친구의 아들이 곤궁한 처지로 한 고을에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아들에게 명하고, 아들은 사촌인 윤시유에게 부탁하여 윤시유가 술과 고기를 들고 몰래 찾아왔던 것이다. 이후 윤시유도 몰래 찾아와 옛 정을 계속 이어나갔다. 삶은 이런 도움이 있어 살아가는 것이다.

역경 속에 학문적 결의를

정약용은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다. 1803년 겨울 동짓날에 「사의재기四宜齋記」를 썼다. 자신이 거처하는 동문매반가의 누추한 방에 '사의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사의四宜란 '네 가지 마땅함'이란 말로, "생각은 맑아야 하고, 용모는 장엄해야 하며, 말은 과묵해야 하고, 행동은 중후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의재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맺었다. "겨울 12월 신축일 동짓날이니, 갑자년(1804년)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 주역의 건괘乾卦를 읽었다." '건괘를 읽었다' 함은 스스로 부지런함을 다짐하는 의미다. 이처럼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의지를 다졌기에, 긴 유배 기간을 빛나는 저작 활동의 기간으로 만들 수 있었다.

강진읍을 둘러싸고 있는 뒷산이 바로 보은산寶恩山이다. 소의 형국이라 우이산牛耳山이라고도 했다. 정약용은 1803년에 보은산에 올랐다. 정약용이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연기와 구름 사이로 여러 섬들이 보일락 말락 했다. '혹시 울정에서 헤어져 형님 정약전이 계신 흑산도가 보일까.' 정약전은 육지와 더 가까운 우이도牛耳島에 거처하기도 하고,

우이도보다 큰 섬인 흑산도에 거쳐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두 섬을 모두 흑산도라 부르기도 했다.

그때 정약용과 동행하던 중이 말했다.

“보은산은 일명 우이산이라 부르고, 정상에 두 봉우리를 형제봉이라 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이곳에 3년째 유배 생활하면서 이곳에 우이산, 그러니까 흑산이 있는 줄 몰랐다니. 어찌 저 바다와 강진의 2백리 거리에 두 우이산이 있단 말인가! 두 형제가 각각 우이산에 유배를 왔는데, 이 산의 봉우리 이름이 또한 형제봉이라니!’

꿈에서나 보던 형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눈에 힘주어 바다를 바라보지만, 너무 먼 데다 탁주 같은 안개가 짙으니 부질없는 짓이었다. 눈물이 앞을 가리더니 이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약용은 이날 일을 「보은산 정상에 올라 우이도를 바라보며[九日登寶恩山絕頂望牛耳島]」라는 제목의 시로 남겼다.

정약용은 사의재에서 4년을 지내고, 1805년 겨울 보은산 중턱에 있는 고성사高聲寺로 거처를 옮겼다. 고성사는 우이산에서 소의 귀밑에 해당하는 곳에 워낭(종)을 달아 쳐야 강진골이 평안해진다 하여 절을 짓고서 붙인 이름이다. 고성사는 고성암高聲菴, 보은산방寶恩山房, 보은산원 등으로도 불렸으며 백련사에 딸린 암자였다.

왁자한 오두막을 벗어나 호젓한 산방으로 옮기게 된 데는 혜장선사惠藏禪師의 배려가 있었다고 한다. 혜장선사는 해남 대흥사의 학승으로 학덕이 높았다. 대흥사의 말사인 백련사에 있던 혜장은 정약용을 만나고 싶어 했다. 1805년 봄에 정약용을 만나 『주역』에 관한 몇 마디를 나누고선 바로 정약용에게 가르침을 구하게 되었다.

그해 겨울에 큰아들 학연이 찾아왔다. 어느새 장성하여 수염이 난 아들을 정약용은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정약용은 아들이 왔는데도 함께 목을 데가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다행히 보은산방에 함께 목을 거처를 얻었는데, 반 칸짜리 방에서 세 때 종소리를 함께 듣는다면 민망해 했다. 정약용은 보은산방을 “우두봉牛頭峯 아래 작은 선방禪房”이라 표현했다.

이 무렵 아들에게 『주역』과 『예기』를 가르치고 의문난 점을 질의하고 응답한 내용을 기록하여 「승암례문僧菴禮問」이라고 이름 붙였다. 혜장도 보은산방에 자주 들러 『주역』에 관한 많은 대화를 했다. 부자와 혜장, 셋이서 시를 짓기도 했다. 이해 그믐밤과 새해맞이는 아들과 함께했다. 유배 온 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있으니 정약용은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서글펐다.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미리 헤어질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배지에서 만난 제자들

정약용은 강진에 처음 유배 왔을 때 동문 밖의 주막에 머무는 곳을 잡았다가, 을축년(1805년) 겨울에는 보은산방으로 옮겼고, 병인년(1806년) 가을에는 이학래李鶴來의 집으로 옮겼다. 그러다 마침내 무진년(1808년) 봄에 다산초당茶山草堂 시절로 구분했다. 그리

하여 다산초당에 있을 때는 좀 평안해진 때라 평가하고, 그 전에 읍중에서 만난 사람들을

‘우환憂患을 같이한 사람’이라 표현했다. “내가 처음 도착하자 주민들이 너나없이 벌벌 떨며 문을 닫고 받아주려 하지않았다. 이 지경에 당해서 나를 친근히 하였던 사람은 손孫·황黃 등 4인이다. 읍중의 제생諸生들은 우환을 같이한 사람들이라 하겠다.”

읍중 제자 여섯 명 가운데 황상黃裳과 이청李晴이 두드러졌다. 열다섯 살 소년으로 공부하러 온 황상에게 정약용은 문사文史를 공부할 것을 권했다. 황상은 스스로 둔하고 막히고 거칠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이에 대해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

“공부하는 사람이 갖는 병통이 빨리 외고, 빨리 글 짓고, 빨리 이해하는 것이다. 너는 그게 없구나. 둔하고 막히고 거친 것을 극복하면 도리어 더욱 넓게 통하고 빛난다. 오로지 마음을 다잡고 부지런히 하도록 해라.”

황상은 그의 가르침을 평생 새기면서 공부를 했으며, 시문학에 두각을 나타냈다. 황상은 정약용에게 제자의 예를 다하고, 정약용이 세상을 뜬 후에는 정약용의 아들들과 정황계丁黃契를 맺을 정도로 각별했다.

이청李晴은 천문·역상에 재주가 있었으며, 정약용의 『대동수경大東水經』 저작에 막대한 역할을 했고, 정약전의 『자산어보茲山魚譜(‘현산어보’로도 읽음)』의 수습과 보완을 하는 등 허다한 저작에 관여하여 기여를 했다. 정약용의 학문적 성과에 공로가 큰 제자였다.

1808년에 옮긴 다산초당은 강진 남쪽에 있는 만덕산萬德山에 있는데, 처사處士 윤단尹搏의 산정山亭이었다. 고통마을에 사는 윤단은 해남 윤씨였다. 그는 손자들인 윤종기尹鍾箕·윤종벽尹鍾璧·윤종삼尹鍾參·윤종진尹鍾軫의 4형제와 윤종심尹鍾心·윤종두尹鍾斗 형제를 정약용에게 맡겼다. 다산초당에 오르는 길 옆에는 현재 윤종진의 묘가 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에서 18명의 제자를 길렀다. 자신의 두 아들도 포함되었다.

다산학 산실, 다산초당

윤씨의 배려로 다산초당으로 옮긴 정약용은 매우 흡족했다.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비롯한 여러 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곳에다 대臺를 쌓고 못을 파고, 줄을 맞춰 꽃과 나무를 심고, 물을 끌어다 비류폭포를 만들었다. 동암東庵과 서암西庵 두 초막을 짓고 천여 권의 장서를 두고 저술을 하면서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살았다.”

다산초당으로 온 이듬해에는 바닷가에서 기이한 돌을 옮겨와 연못에 ‘석가산石假山’을 만들었다. 바위로 된 벽에는 ‘정석丁石’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서 표시해 놓았다. 지정池亭 서북쪽 모퉁이에는 샘을 팠다. 푸른 돌을 평평하게 갈아 붉은 글자를 새겨 초당 앞에 차를 달이는 작은 부뚜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석가산, 정석, 약천藥泉, 다조茶竈’의 네 가지를 조성하고 정약용은 『다산사경첩茶山四景帖』을 만들어 옮겼다.

다산초당에서 강학이 이뤄졌다. 제자들은 서암에 머무르고, 정약용은 송풍루松風樓라고도 부르는 동암에 기거했다. 이곳에 많은 장서를 갖추고 연구에 정진했다. 많은 장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강진과 바로 이웃한 해남에 있는 외가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

진다.

김해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이학규李學逵에게 보낸 시에서는 “7년 동안 읍내에서 살 때는 답답하기가 새장에 갇힌 듯했는데, 근래 다산으로 옮겨와 대략 소원을 이뤘다”고 말하고 있다. 또 “동떨어진 곳이라 공부하기도 좋다”고 하였다. 이곳에서 정약용은 여유를 찾았고, 이러한 여유가 큰 힘이 되어 이곳은 정약용과 제자들이 학업을 정진하는 연구 공간이 되었다.

제자 정수칠丁修七에게 준 글에 보면 그의 학문과 그의 가르침을 엿볼 수 있다. 정약용은 공자의 가르침이 수기치인修己治人에 있다면서 경학經學과 경세학經世學을 강조했다.

“경전經典의 뜻이 분명해진 후에야 도道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도를 얻은 후에야 심술心術이 비로소 바르게 되고, 심술이 바르게 된 후에야 덕德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경학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공자의 도道는 그 쓰임이 경세經世에 있다. 무릇 장구章句에만 얽매이고 은일隱逸이라 자칭하며 사공事功에 힘쓰려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공자의 도가 아니다.”

“공자의 도道는 효제孝弟(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으로 덕德을 이루는 것을 인仁이라 말하고, 헤아려 인을 구하는 것을 서惇라고 말한다. 공자의 도는 다른 게 아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인연들

다산으로 옮기니 향촌의 윤서유와도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정약용이 신미년(1811년) 봄에 쓴 「조석루기朝夕樓記」를 보면 윤서유와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윤서유는 그의 아들 창모(昌謨, 족보 이름은 영희榮喜)를 다산초당에 보내어 정약용에게 배우게 했다. 그러다 윤서유와 정약용은 자식 간의 혼인을 논의했고, 임신년(1812년)에 창모와 정약용의 외동딸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 후 정약용의 외손자 윤정기尹廷琦가 태어났다.

다산초당은 정약용의 넓고 깊은 학문이 이뤄진 곳이다. 후세 사람들이 정약용을 ‘다산’이라는 호로 즐겨 부른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산초당에서 이뤄진 정약용의 학문과 저작 활동에는 그의 제자들이 함께했다. 정약용은 먼 남쪽 해안가에 유배되어 그리운 사람들과 헤어져 있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인연을 맺었다.

* 이상의 강의원고는, 김태희의 『정약용의 삶과 글』(실학박물관, 2019)의 내용으로 편집된 것임. 2022년 9월 15일. 김태희) 강의원고 2022년 9월

제5강

수려한 자연을 닮고 싶다, 호남여행기

정성일

광주여대 교수

수려한 자연을 닮고 싶다, 호남여행기

정 성 일(광주대 교수)

- I. 머리말
- II. 마쓰다 고죠의 여행 일정
- III. 마쓰다 고죠의 시선으로 본 고적과 명승지
- IV. 맺음말

I. 머리말

호남의 강과 산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고 느낀 것을 소재로 하는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일본인 마쓰다 고죠[松田行藏]이다.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가 1888년 호남을 여행한 뒤 1891년 여행기와 농업과 상업 관련 조사 결과를 담은 책을 간행하였기 때문이다.³⁰⁾ 여기에서는 주로 그가 쓴 여행기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1888~89년 시점에서 상세하게 기술된 호남 여행기로서는 보기 드문 사례이기에, 비록 일본인이 쓴 것이기는 하지만,³¹⁾ 이를 바탕으로 하여 타자의 시선으로 본 호남의 자연환경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I. 마쓰다 고죠의 여행 일정

30) 松田行藏 편, 『慶尙道全羅道旅行記事竝ニ農商況調査録』, 朝鮮國 釜山港 商法會議所 발행, 東京築地活版製造所 인쇄, 1891. 이 책은 일본에서 복간된 바 있으며(龍溪書舍, 2009), 현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가 2001년에 『개화기 일본 민간인의 조선 조사 보고 자료집』 1에 이 책의 영인본을 실었다. 차철옥이 부산역사문화대전에 『경상도 전라도 여행 기사 병농상 현황 조사록』이란 제목으로 이 책의 해제를 소개하고 있다.

31) 마쓰다 고죠[松田行藏]는 호남 여행보다 1년 전인 1887년에 경상도와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등을 여행한 적이 있다. 이때의 여행기를 책으로 간행하였는데 그것이 『朝鮮國慶尙忠清江原道旅行記事』(발행소 朝鮮國 釜山浦 商法會議所, 편집인 겸 발행인 松田行藏, 1888.)이다. 이 책을 소개한 스가와 히데노리는 “조선의 민족성을 부정적·차별적으로 바라보는 후대의 일반적인 일본인 관찰자와 달리, 마쓰다 고죠가 조선의 농업(農業) 기술이나 공작(工作) 기술이 뛰어난 점은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須川英德, 『日本人が見た朝鮮の村々-松田行藏 『朝鮮國慶尙忠清江原道旅行記事』-』, 『アジア遊学』 32, 일본 勉誠出版, 2001, 59쪽).

부산항 상법회의소 서기를 맡고 있던 마쓰다 고죠의 호남 여행은 1888년 5월 13일(일본력) 운봉현에서 시작되었다. 그 뒤 남원부(5.14.)→임실현→전주(5.15.)→익산군(5.17.)→함열현→임파현(5.18.)→옥구현(5.19.)→만정군→김제군→금구현(5.20.)→태인현→고부현(5.21.)→흥덕현→고창현(5.22.)→장성부(5.23.)→창평현(5.24.)→광주→남평현(5.25.)→나주→함평현(5.28. ?)→무안현(5.28. ?)→영암군→강진현(5.29.)→해남현→진도군(5.31.)→강진현(6.1.)→장흥부(6.2.)→보성군(6.3.)→낙안군(6.5.)→순천부→광양현을 거쳐서, 동년 6월 7일 구례군을 마지막으로 호남 여행을 마친 그는 경상도 하동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갔다.³²⁾

Ⅲ. 마쓰다 고죠의 시선으로 본 고적과 명승지

1. 황산대첩비

1888년 5월 13일 운봉현을 직접 방문한 마쓰다 고죠가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운봉현(雲峯縣)

팔랑재[八良峴]에서 4, 5백 미터 거리에 인월 장터가 있다. 호구는 20호 남짓이다. 장날은 3일과 8일이다. 그 왼편으로 삼봉산 북쪽 기슭에 우근촌(牛斤村)이 있다. 호구는 30호 남짓이다. 그 서쪽에 지리산이 우뚝 서 있고, 동쪽 아래 방향에 중리동(中里洞)이 있다. 호구는 10호 남짓이다. 지리산 북쪽에 황산재[黃山³³⁾峙]가 있고, 그 남쪽 아래편에 인월역(引月驛)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호구는 7~80호이다. 황산의 서쪽 기슭에 화수(花水) 주막이 있다. 호구는 40호 남짓이다. 그 서쪽에 떡갈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산이 하나 있는데, 이를 가리켜 화수³⁴⁾산(花水山)³⁵⁾이라 부른다.

본디 황산(荒山)은 임진왜란 때 싸움터였는데, 조선의 도독(都督) 유씨(劉氏)³⁶⁾가 우리 군[왜군, 일본군]을 어렵게 한 곳이라 전해지고 있다. 즉 화수산의 서쪽 기슭에 비(碑)가 있는데 그 구성이 매우 크다. 앞에 하마비(下馬碑)가 세워져 있다. 그 비문을 베껴서 이를 맨 뒤에 옮겨 적었다(밑줄 인용자).

마쓰다 고죠는 황산대첩비의 비문을 옮겨 적으면서 “황산이 ‘임진왜란’ 때 싸움터였다”

32) 마쓰다 고죠[松田行藏]는 경상도 부산에서 출발하여 동래(5.3)→김해(5.4)→창원(5.6)→함안(5.7)→진주(5.8)→단성(5.11)→함양(5.12)을 거쳐 5월 13일 운봉현으로 들어왔다. 호남 여행을 마친 그는 하동(6.8)→곤양→진주→사천(6.10)→고성(6.11. ?)→진해(6.12.)→창원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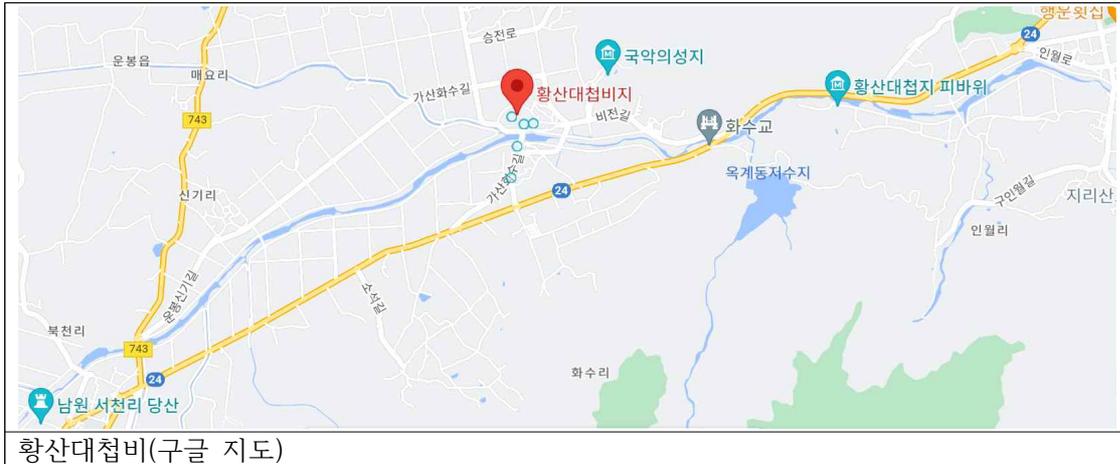
33) 원문은 황산(黃山)인데 황산(荒山)의 오기(誤記)가 아닐까?

34) 지금도 황산대첩비로 하는 ‘가산화수길’이라는 도로명에 ‘화수’가 들어 있다.

35) 황산을 일명 화수산이라 한다. 《조선환여승람》에는 이성계가 왜적과의 싸움에서 대승한 황산(荒山·일명 화수산)은 운봉 동쪽 10리에 있는데 높이가 수백 장이나 되는 돌산[石山]으로 정상에 높은 바위가 있다고 했다. 황산 근처에는 이성계가 왜장 아지발도를 활로 쏘아 죽였을 때 흘린 피로 물든 피바위(血巖)와 황산대첩비가 그 전황을 말해주고 있다.

36) 원문은 유씨(劉氏)로 적혀 있지만, 이성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거나, 그때 “왜군[일본군]을 ‘어렵게 한’ 조선의 장수[도독]을 유씨(劉氏)”라고 적은 것은 사실 판단의 오류가 아닐까 생각된다. 황산대첩비가 고려 말 왜구를 물리친 이성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마쓰다 고쵸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2. 월출산의 바위

1888년 5월 28일 영암군을 방문한 마쓰다 고쵸가 월출산에 대하여 적은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영암군(靈巖郡)

(전략) 본디 관아의 남측을 가로지르는 월출산(月出山)은 동쪽 서쪽 북쪽에서 멀리 바라보았을 때 언제나 여러 봉우리의 윗부분에 튀어나와 있었는데도 현지(現地)의 지층에 도착해보면 그렇게 높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곳의 지형을 말하자면 산의 형세가 동서로 길게 이어졌다. 북쪽으로 다가서면 산꼭대기가 모두 툭날처럼 생겨서 높이 솟은 바위가 여러 겹 포개어져 있는데, 그 모양이 때로는 앞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때는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내는 것 같기도 하다. 그 기이한 광경을 거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깎아지른 바위 사이에는 모두 작은 돌이 깔려 있어서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다만 무너진 바위가 여기저기에 위로 튀어나와서 수십 길[仞]의 높이가 되었다.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정돈되니, 정말로 전라도 중에서 가장 빼어난 기이한 산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밀줄 인용자).



3. 옥매산의 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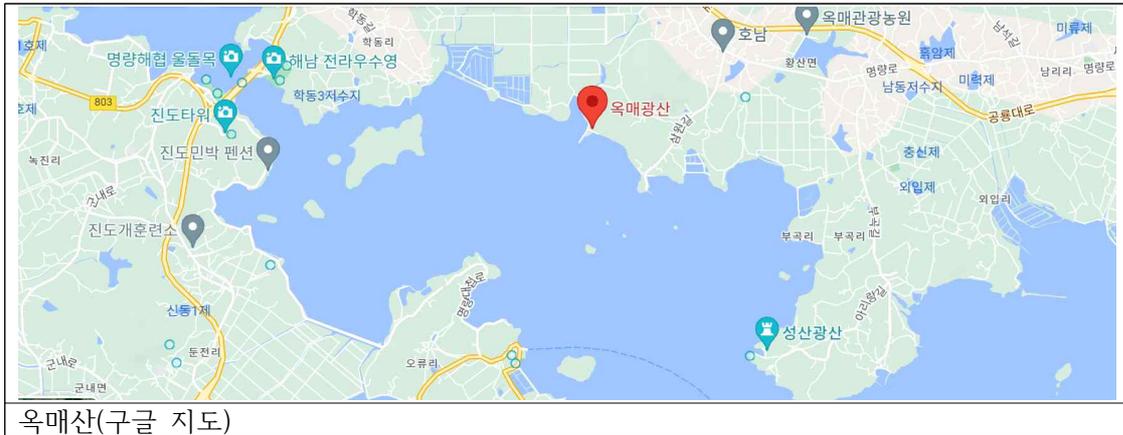
1888년 5월 30(?)³⁷⁾일 해남현을 여행한 마쓰다 고쥬가 옥매산[원문은 왕매산]에 대하여 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남현(海南縣)

(전략) 해남현을 나와서 진도군(珍島郡)으로 행진하려고 남각산(南角山)과 온인동산(溫仁洞山)의 중앙에 나 있는 길을 지나가면, 온인동산의 동쪽 기슭에는 송염동(松鹽洞), 남각산의 동쪽 기슭에는 행화정(杏花亭) 두 마을이 있다. 두 산의 서쪽 뒤편으로 나가면 신촌(新村)이 있으며 호구는 20이다. 그 남쪽 기슭에는 바다와 만(灣)이 바짝 다가와 있다. 조수가 빠져나간 간조 때는 단지 실 줄처럼 가느다란 물길이 있을 뿐이지만, 만조가 되면 산기슭까지 조수가 밀려온다고 한다. (중략) 그곳에서 나아가면 오른편에 남리역(南利驛)이 있고 호구는 20 남짓이다. 1킬로미터를 더 가면 소정촌(小亭村)이 있고, 그 서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곳을 왕매산(王³⁸埋山)이라고 부른다. 산의 맨 위와 맨 아래에는 소나무가 무성하다. 골짜기는 가는 곳마다 소나무가 없는 곳이 없으며, 그 생육이 꽤 좋다. 길쪽하고 큰 나무가 다양하게 있고 울창하여, 낮인데도 오히려 어두움을 느낄 정도이다. 이와 같은 소나무는 일본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던 것인데, 전라도 중에서도 보기 드문 빼어난 물건이 되리라. 이 산의 서북부와 남부는 모두 바닷물로 둘러싸였으며, 그 서쪽 산맥은 서해를 굽어보고 있다. 그 숲속에 소정(小亭) 주막이 있다. 이곳에서 길을 왼쪽으로 틀어서 이 산의 남쪽 골짜기로 들어가 몇 백 미터를 더 행진하면 서쪽 기슭에 있는 바다 여울이 보인다(밀줄 인용자).

37) 원문에는 강진(5월 29일)과 진도(5월 31일) 사이에 해남을 기슭하고 있는데, 다만 해남의 답사 일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역자는 5월 30일로 추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38) 원문은 ‘王’이지만 ‘玉’의 誤記가 아닐까? [역자]



4. 웅치산의 숲

1888년 6월 2일 장흥을 방문한 마쓰다 고죠가 '웅치산'[당시 장흥 관할이었으나 현재는 보성군 웅치면에 해당]에 대하여 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흥부(長興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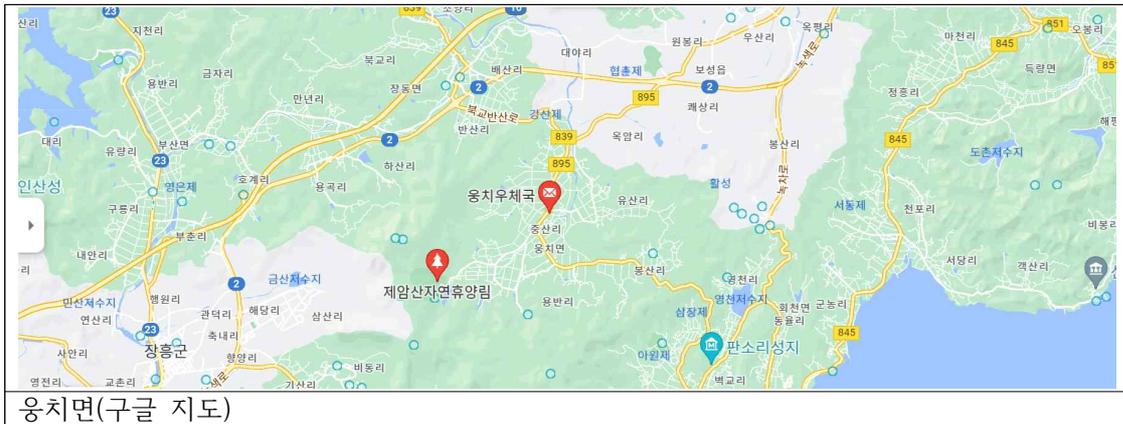
(전략) 장흥부를 출발하여 동진하면 웅치산(熊峙山)의 바로 남쪽에 있는 박사(珀沙) 찰방길[察訪道]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그곳의 서쪽 뒤편 방향을 향하여 동진하면 웅치산의 서북쪽 기슭에 닿는다. 그곳의 골짜기는 이미 모내기에 착수하였다. 보리는 모두 풍작으로 6~7일이 지나면 수확할 시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웅치산(熊峙山)³⁹⁾의 서쪽에 있는 작은 언덕 하나를 넘어서 내려가면 군두치촌(軍頭峙村)이 있다. 호구는 겨우 5~6호이다. 다시 이곳에서 작은 언덕⁴⁰⁾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나가면 여러 산맥이 앞면에 겹겹이 포개어져 있다. 게다가 평지가 없는 듯하다. 그곳에서 서남쪽 무명산을 바라보면 북쪽 골짜기에 나무가 울창하여 대낮인데도 햇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아마도 이 산 정도가 되면 사나운 호랑이가 늘 서식하는 곳이라서 인적이 드문 것 같다. 여기에서 동진하여 웅치산의 북쪽 뒤편으로 다가가면 아래쪽에 봉계촌(鳳溪村)이 있는데 호구는 겨우 3호이다. 그 북쪽에 해당하는 곳에 큰 산이 중요한 길목에 가로놓여 있는데, 그 명칭을 알지 못한다. 이곳에서 약간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5~6백 미터를 가서 오른쪽으로 꺾어 북진하면 그 골짜기에 회기동(會氣洞)이 있다. 총 호구는 30 남짓이다. 그 왼쪽 골짜기에 노루목 마을=장항촌(獐項村)이 있으며 호구는 10 남짓이다. 이곳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수인산성(守仁山城)이 있는 산에 뾰족하게 솟은 여러 개의 봉우리가 골짜기의 남쪽을

39)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산 113-1 일대의 '웅치산 자연휴양림'을 가리키는 것인가?

40) 원문은 '소고(小高)'로 적혀 있지만 다른 글자를 '高'로 잘못 쓴 것이 아닐까? [역자]

막아주고 있고, 북쪽을 향해서는 커다랗게 굽어진 만(灣)을 만들어 놓았다. 북쪽에 있는 수목의 울창함이 워낙 빼어나서 멀리서 바라보는 경치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정돈된다. 다시 동진하면 마수원촌(馬首院村)이 나오는데 호구는 7~8이다. 그 동남쪽에 해당하는 곳에 웅치산이 높게 솟아 불쑥 튀어나왔으며 날카로운 봉우리가 우뚝 서 있다(밀줄 인용자).



5. '천관산'[정간산 丁看山] / '제암산'[천암산 泉岩山]의 바위와 소나무

1888년 6월 2일 장흥을 방문한 마쓰다 고조가 천관산[원문은 정관산] 등에 대하여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6월 2일 비 한난계(寒暖計) 75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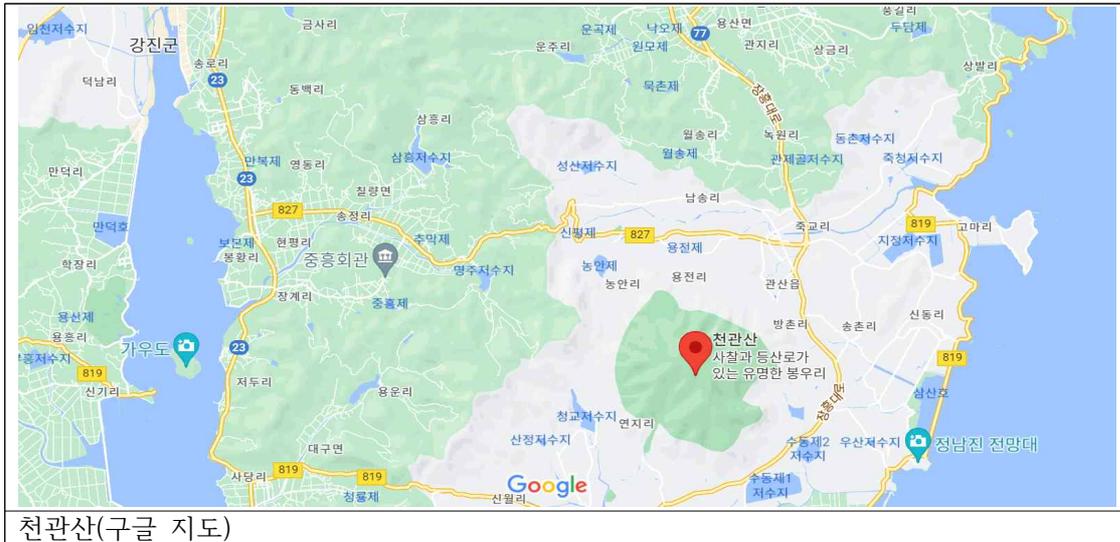
강진현(康津縣)은 동쪽은 장흥부(長興府)와 접해 있고, 북쪽은 영암군(靈巖郡)과 월출산으로 경계를 나눈다. 서쪽은 해남현(海南縣)과 이웃하고, 남쪽은 큰 바다가 끝이다. (중략) 강진현을 나와서 동쪽으로 몇백 미터를 나아가면 언치동(言治洞)이 있고 호구는 20 남짓이다. 그 남쪽 면 죽창(竹倉) 안에 용촌(龍村, 호구 20), 동쪽에 갈촌(葛村, 호구 20) 두 마을이 있다. 그 동쪽 기슭에 높이 솟은 세삼봉(世三峯)의 서남쪽 기슭으로 붙어서 행진하면, 들판의 서쪽 기슭에 도층(倒層) 감목동(甘木洞)이 뒤섞여 대숲 속에 점점이 흩어져 있다. 호구는 30 남짓이다. 그 남쪽 면 언덕이 있는 곳에 작은 마을이 군데군데 있다. 이곳에서 세삼봉의 남쪽 산맥을 동쪽으로 돌아서 나아가면, 경작지가 천관산[원문은 丁看山]의 서쪽 기슭까지 이어져 있어서 꽤 넓다. 보리는 이미 절반이 익었으며, 못자리의 어린 벼는 뽑아낼 시기가 다가왔다. 왼편 이 산의 동쪽 기슭 언덕 가운데에 태동(太洞)이 있는데 호구는 20 남짓이다. 이 마을의 안팎으로 뽕나무가 무성하다. 윗 들은 대숲이 있는데 골짜기까지 타고 넘을 정도이다. 그 가운데 작은 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얼핏 보면 집이 없는 듯하다. 이 마을의 북쪽

뒤편 세삼봉의 북동쪽 뒤편까지 경작지가 활처럼 굽은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들판의 중턱까지 밭을 일구었다. 그곳을 지나서 2킬로미터 더 가면 왼쪽 골짜기의 숲속에 도안촌(都安村)이 있는데 호구는 30이다. 그 남쪽 기슭에는 대실촌(大失村)이 있으며 호구는 10 남짓이다. 다시 남쪽 들판 천관산[원문은 丁看山]의 북쪽 기슭 골짜기에 붙어서 동쪽으로 가면 이 산의 기슭에 한실(寒失) 중사리(中沙里) 두 마을이 있다. 호구는 각기 30이다. 이 마을의 서쪽 아래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한 개 있는데, 그것이 구십포(九十浦)로 흘러간다. 본류(本流)는 장흥부의 산속에서 발원한 것인데, 그것이 흐르는 영역이 무엇보다도 좁다. 양쪽 들판의 중턱에 나무가 우거진 숲이 있는데 그 속에 풍동(豊洞)이 있다. 호구는 20 남짓이다. 그곳에서 더 나아가면 천암촌(泉岩村)이 있으며 호구는 7~8이다. 이 마을의 서쪽에 천암산(泉岩山)⁴¹이 북남으로 방향을 달리하며 우뚝 서 있다. 그 남부는 소나무로 덮여 있고, 동북은 기이하게 생긴 바위가 벽처럼 서서 길 위로 다가서고 있다. 그 빼어난 절경을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실개천이 바로 이 바위의 북쪽 기슭과 벼랑에 부딪쳐서 굽어지는데 그 모양이 마치 작은 만(灣)과 같다. 그곳은 장흥(長興)과 강진(康津)의 경계이며, 장흥 중심부에서 2킬로미터 정도 된다(밀줄 인용자).



제암산(구글 지도)

41) 제암산(帝岩山)을 가리키는 것인가?



위와 같이 마쓰다 고쵸가 왜구를 물리친 이성계의 공적을 기리는 황산대첩비를 보고 적은 것을 비롯하여, 그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월출산의 바위)라거나, “일본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던 소나무”(옥매산의 소나무), “한 번 보고 나면 마음이 정돈된다”(원문은 응치산=제암산? 숲)고 높이 평가한 호남의 자연 경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V. 맺음말

마쓰다 고쵸가 본 무등산과 영산강은 어떠했을까? 먼저 무등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마쓰다 고쵸가 무등산에 대하여 몇 군데에서 언급을 하였으나 눈에 띄는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 광주의 관할을 소개하는 가운데 무등산을 ‘우뚝 서 있는 높은 산’으로 묘사하는 정도에 그쳤다. 예를 들면 5월 23일 장성에서 바라본 무등산의 모습을 “구름 끝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높은 산을 광주 무등산이라 부른다.”고 썼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나주에서 북동쪽을 바라보면 광주 무등산이 우뚝 서 있는데, 늘 구름 사이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며, 구름과 안개가 산꼭대기를 막아서서 덮고 있다.”고 적었다.

그렇다면 영산강에 대해서는 어떨까? 마쓰다 고쵸는 자신의 여행기에서 ‘영산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 이유를 영산강이라는 이름이 ‘영산포’라는 나주의 포구마을이 형성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데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⁴²⁾

마쓰다 고쵸가 그의 책에서 쓴 호남의 자연 환경은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당초 의도했던 것은 호남 지역의 농업과 상업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결국 호남 지역을 일본 상품의 판매처이자 원료 조달을 위한 공급 기지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임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끝)

42) 영산강의 명칭을 “담양에서는 죽록천(竹綠川), 광주에서는 극락강(極樂江) 또는 칠천(漆川), 나주에서는 통일신라 때 이름 금성(錦城)에서 유래한 금강(錦江) 등으로 불렀다. 현재의 강 이름인 영산강은 나주의 포구마을인 영산포(榮山浦)에서 유래한 것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김경수, 김경수, 『영산강 유역의 경관변화 연구: 영산강 시가지 형성과 간척지 개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01.).

제6강

호남대로

호남선비의 과거길, 땅끝에서 한양까지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호남대로

호남선비의 과거길, 땅끝에서 한양까지

조 광 철(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은 사회적 신분상승이나 유지를 위한 거의 유일한 사다리였다.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은 자나 깨나 과거시험에 열중했다. 그것이 지나쳐 폐단도 많았다. 오늘날 전국의 수백 만, 수천 만 명의 청·장년들이 신림동 고시촌에 몰려 있다고 상상해보라.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어쨌거나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과거시험의 꽃인 문과는 총 804회를 실시했다. 여기서 배출된 급제자는 1만 5,000여명이었다. 문과 급제자의 출신지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영조 재위시절부터 나온다. 이에 따르면 영조 이후 문과 급제자 5,000여 명 가운데 한양 출신이 약 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평안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순이었다. 전라도는 급제자의 7%가량인 약 380명을 배출했다.

과거시험 제도는 매우 복잡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양에 가야했다는 사실이다. 전시에 앞서 시행하는 단계(會試)에서 사실상 급제자와 탈락자가 결정됐으므로 전시는 일종의 요식행위와 같았지만 최종 응시를 위해 반드시 한양에 가야 했던 점은 분명했다. 따라서 시험을 보러 한양까지 가는 여정인 과거길이 생겨났다.

옛 자료는 급제자의 숫자만 알려줄 뿐이다. 실제 응시자가 얼마나 됐는가라는 기록은 드물다. 그럼에도 응시자가 급제자의 수천, 수만 배에 달했을 것은 분명하다. 1800년 한양에서 열린 과거에 11만명이 응시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지방에서 왔을 것으로 본다면 한양 가는 길이 과거 응시자들로 메워졌을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이 말은 과거길이 동시에 '낙방길'이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갈,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호남대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영남대로'도 마찬가지다. 18세기 신경준이 펴낸 『도로고(道路考)』라는 책을 보면, 도로는 한양을 기점으로 최종 행선지 이름을 따서 지었고 전

라도를 관통하는 도로는 '제주로'라고 명명했다(영남대로도 '동해로'라고 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용하는 '호남대로'란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적인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과거길에 초점을 맞추되 조선시대 여행으로 시야를 넓혀 살펴보고자 했음도 밝혀둔다.

1. 여행의 경로

호남대로의 전체 구간은 한양과 제주 사이였고 크게 육로와 해로로 구성됐다. 그 중 육로 구간은 해남·강진이 속한 해남반도에서 나주까지는 현재의 국도13호선과 비슷했고 나주에서 서울까지 경로는 국도1호선의 경로와 거의 일치했다. 신경준의 『도로고』에 나온 경로에 몇 가지 첨언해 호남대로의 경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열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한양 도성 → 한강(동작나루 또는 노량진) → 수원 → 오산 → 천안 삼거리 → 차령(고개) → 금강 → 공주 → 노성 → 은진 → 여산 → 삼례 → 금구 → 태인 → 정읍 → 노령(고개) → 장성 → 황룡강(선암나루) → 나주 → 영산강(영산포 나루) → 부소원(영암 신북면) → 영암 → 월출산(누릿재) → 해남 또는 강진 → 제주해협 → 제주

이 짧은 글에서 전체 경로를 다 나열할 수는 없어 여기서는 해남반도에서 노령산맥에 이르는 광주·전남 구간만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육로만을 따로 떼 말하자면 호남대로의 끝(동시에 시작)은 해남·강진이었다. 해남·강진이 육로의 끝이었던 것은 이곳에 제주를 오가는 선착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강진의 옛 이름이 탐진(耽津)인 데서도 알 수 있다.

제주에서 육지로 나오기 위해 건너는 바다, 즉 제주해협을 횡단하는데 얼마나 걸렸는가는 큰 의미가 없었다. 어떤 이는 제주해협을 하루 만에 건넜고 어떤 이는 영원히 해협을 건너지 못했다. 정기적인 선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기회가 되면 닥치는 대로 배에 올랐다.

선착장이 몰려 있던 해남반도는 동쪽 강진만, 서쪽 마로바다 사이에 있다. 강진만 쪽 선착장으로는 이진(梨津, 해남 북평면)과 남당포(강진읍 남포마을)가 있었다. 마로바다 쪽에는 고어란(古於蘭, 해남 화산면 연곡리)과 관두량(官頭梁, 화산면 관동리)이 있었다.

해남반도에서 도착한 사람은 국도13호선을 따라 나주로 왔다. 누릿재를 통해 월출산을 넘고, 영암읍내를 거쳐 부소원(夫所院, 燧院)에 이르렀다. 부소원은 영암과 나주의 중간지점에 있었다. 아침에 영암읍내를 출발하면 정오 무렵에는 부소원에 도착,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늦은 오후면 나주 시내에 도착하곤 했다.

나주에서는 대체로 영산강 기슭을 따라 북상했다. 선암나루를 통해 황룡강을 건넜고, 다시 황룡강 계곡을 따라 북상해 장성 읍내에 도착했다. 노령 아래 원덕리에서 위밍업을 한 뒤 노령을 넘었고 정읍 천원(川原)을 거쳐 계속 북상했다.

당시 경로의 몇 가지 특징을 간추려보자.

우선은 '경로의존성'이다. 경로의존성이란 한번 생긴 습관이나 관습이 쉽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스마트폰의 '천지인'이나 쿼티(QWERTY) 자판과 비슷하다. 여행 경로에도 이런 현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호남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는 여산휴게소 또는 이서휴게소에서 정차하곤 한다. 조선시대 여산휴게소 역할을 했던 것이 황화정(皇華亭)이다. 황화정은 현재 논산 육군훈련소 근처에 있다. 조선시대에 신구(新舊) 전라감사가 교대했던 장소로 유명하다.

이서휴게소도 비슷하다. 이서휴게소는 행정구역상 완주군에 속하지만 이 휴게소 바로 아래쪽이 옛 금구 읍치(邑治)이다. 조선시대 여행자들이 쉬었던 곳에 현대의 여행자들도 쉬어가고 있는 셈이다.

천안삼거리도, 노령(갈재)도 마찬가지였다. 노령은 고려시대 임금 현종, 김시습, 허균이 넘었던 고개이고, 고경명이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을 오갈 때 넘었던 고개이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국도1호선·호남고속도로·호남선 철도가 모두 노령을 넘는다. 세월이 흐르고 산천초목이 변해도 길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조선시대 여행자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경로를 선호했다는 사실이다. 신경준의 『도로고』 속 '제주로'의 경유지 가운데 도시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제주로 경유지 60곳 중 17곳, 즉 25%가 도시였다. 크고 작은 마을 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았다). 이는 오늘날 고속도로나 철도가 도심을 비껴 산이나 허허벌판을 지나는 것과 비교된다.

반면 조선시대 여행자들은 산이나 허허벌판을 통과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자 했던 것 같다. 비록 호남평야 중앙을 가로질러 가면, 평야와 소백산맥 경계지역을 따라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거리를 단축할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호남평야를 가로 질러가면 여러 하천(만경강·원평천·동진강 등)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다. 그곳은 도시가 듬성듬성 산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호남평야에 있는 도시는 지금처럼 김제, 익산 정도였다(반면 호남대로에는 북쪽으로부터 노성, 은진, 여산, 삼례, 금구, 태인, 정읍이 도시들이 즐비했다). 조선시대에 이들 도시는 수 만, 수십 만 명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잠 잘 곳, 먹을 것, 기타 소모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장 등 여러 서비스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오늘날처럼 허허벌판 호남평야를 가로질러 여행한 것은 1914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다.

2. 여행의 현실

우리가 다리 근육의 힘만으로 여행하던 시대에서 벗어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여행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일이었다. 여행은 힘들고 돈도 많이 들었다. 시처럼 낭만적이지 않았다.

북제주 사람들 중에는 평생 남제주의 정방폭포를 보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목포와 광주의 거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2배 거리다. 목포 사람들 중 평생 광주에 와본 적 없이 생을 마감한 사람이 많았다. 믿기지 않겠지만 1960년대에도 흔하게 들던 말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오죽했겠는가? 조선시대 전국 300여 도시 간 시간 거리는 4~5시간(편도)이었고 영산강 유역에서 오일장의 평균 간격은 1시간(편도)이었다. 장을 다녀오는 것은 그저 '가볍게 콧바람을 쐬는 일'이 아니었다. 엄청난 '행군'이었다(무거운 짐을 휴대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도시 규모도 전국 팔도에서 한양(반경 2.5km)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경 1km에 국한됐다. 여행의 범위가 무척 좁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이처럼 좁은 공간에 얽매어 살았던 데에는 집을 떠나면 만나는 수많은 장애들 때문이기도 했다.

2_1. 고갯길

여행 중에 읍은 한시 중에 고개는 단골메뉴처럼 등장한다. 철령, 단발령, 문경새재, 차령, 노령 등 그것들이 어디쯤에 있는지 모를 수많은 고개들이 한시를 가득 메운다. 윤기(18세기)의 '호남도중(湖南道中)'이란 시의 일부다.

“어제는 임실 마치(馬峙)와 남원 울치(栗峙)를 넘었고, 오늘은 곡성 묘치(猫峙)와 낙안 불치(佛峙)를 넘었다. 겨우 한 고개 넘으니 또 한 고개.....다들 차령(車嶺)만 넘으면 일이 없을 거라 했지만, 전라도 고개들에 비하면 차라리 차령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 고개가 자주 등장했던 것일까? 고개는 가팔랐다. 아무리 이름난 고관대작이더라도 고개에서는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걸어야 했다. 그래서 시를 지어 푸념했다. 고갯길은 삶 자체를 달라보이게 만들만큼 힘들었던 것이다.

오래 전 고개를 비롯한 모든 길은 위험했다. 예전 광주향교는 장원봉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그곳을 오갈 때 “수풀이 우거지는 계절이면 수풀에 매복해있는 강도들에게 화를 당할까 하는 불안이 컸다(患於菟時遲禍心).” 그래서 향교를 읍성 안으로 옮겼다고 한다(강항, '광주향교상량문'). 도심에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진 곳을 왕래하는 데도 이러했을 진데 하물며 첩첩산중 속 고개는 어떠했겠는가?

고개에는 강도들이 들끓었다. 육십령(六十嶺)은 전북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 사이의 고개이다. 덕유산 남쪽에 있다. 육십령이란 이름은 “이 고갯길에 산적이 하도 많아 반드시 60명이 모여야 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내용이다.

노령도 비슷했다. 노령은 산적들의 소굴이었다. 이 때문에 노령의 고갯마루에 방범초소를 설치도 해봤지만 이 방범초소마저 산적들에게 습격당하곤 했다. 노령의 산적은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다. 1890년대 매천 황현은 노령을 넘던 이기(李沂)가 산적을 만나 고욕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시를 지어 보냈다.

“산적들한테 입던 옷까지 탈탈 털렸다는 얘기를 들었소. 쌀쌀한 가을날, 산중에서 알몸으로 오돌 오돌 떨어졌을 모습을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는 걸 어찌겠소. 그런데 이형(李兄)께서는 세상이 다 알아주는 시인이 아니요. 그런 이형을 못 알아보았다니 그

날 녹림(綠林) 중에 제대로 눈깔 달린 놈이 한 놈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노령 아래 장성 원덕리 미륵불이나 목란주막이 유명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고개를 넘는 데 간절한 기도의 힘이 필요했고 맨 정신으로는 고개를 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2_2. 다리·나루터·월천꾼

오늘날 우리는 강을 건너는 고충을 알지 못한다. 다리 때문이다. 다리는 도로에 연이어 반듯하게 놓여 있고 우리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강을 건넌다. 그러나 예전에는 작은 개울조차 건널 때 두려움이 앞섰다. 모든 강과 개울에 기다렸다는 듯이 다리가 놓여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름에는 다리가 놓여있고 겨울에는 같은 자리에 나룻배가 운행했다. 그런데 다리도, 나룻배도 없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뱃사공이 보일 때까지 무작정 강가에 서성거리거나 수심이 얇은 곳을 찾아 멀리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수심이 얇은 강에서는 돈을 주고 월천꾼의 등에 업혀 건너기도 했다.

2_3. 숙소

자동차 여행 중 우리는 휴게소에 들러 용변을 보고 기름을 넣고 요기를 한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휴게소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여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의 이용범위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 달랐다. 과거를 볼 만한 자격을 가진 양반이라면 일가친척의 집, 먼저 과거에 합격해 지방관으로 근무하는 친구의 근무지 관아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 평민이나 상인들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여행을 했던 것이다.

진도에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진도에서 서울까지는 35참(站)이다.”라는 말이 있다(『옥주지』). 여기서 말하는 참(참터)이란 역(驛)이 아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역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었다. 사실 참이란 주막을 뜻할 때가 많았다. 주막은 한겨울이면 뜨끈뜨끈한 방·밥·국물이 있는 곳이었고, 한여름이면 폭우를 피하며 모기나 벼룩이랑 씨름하던 곳이기도 했다.

주막하면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주막에서 돼지국밥이나 설렁탕을 먹을 수 있었을까? 확실치 않다. 아마도 이런 음식을 맛 봤을 개연성은 낮다. 그러나 고창 선비 황윤석의 『이재난고』에 남긴 주막 음식에 대한 리뷰가 있다.

“(1778년) 충청도 주막 음식은 정말 맛이 없었다. 무김치는 하도 짜서 물이 씻어 먹어야 했다. 반면 전라도 삼례(參禮) 주막에서 먹는 무김치는 무척이나 맛있었다.”

2_4. 날씨·맹수·어둠

여행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날씨였다. 바닷길에서 폭풍우는 15세기 최부, 18세기 장한철, 19세기 흑산도 흥어장수 문순득을 의도치 않는 ‘해외여행’을 하게 만들었다. 육로에서 날

씨는 바닷길처럼 생사를 다룰 정도의 위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때문에 큰 고생을 하곤 했다.

폭설은 고갯길 통행을 막았다. 노령의 경우에 효종 때 폭설로 3일간 통행이 차단됐다(『효종실록』 1년 윤11월 8일). 놀랄 일도 아니다. 터널이 생기기 전 수많은 고개는 특하면 통행이 막히곤 했다. 영산강이나 금강을 건널 때면 강물이 불어 나룻배가 운행을 중단할 수 있었다. 또한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지면 그것을 흠뻑 맞아야 했다. 1597년 이순신이 복권되어 섬진강을 따라 임지인 통영으로 가던 중 하동에서 한밤중에 폭우를 만나 겪은 고충과 기이한 인연은 『난중일기』의 한 대목을 차지한다.

어두워지면 여행을 중단했다. 어둠 속 맹수 걱정부터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변고를 당할지 몰랐다. 19세기 정약용이 강진 칠량면과 대구면 사이 가령(槲嶺)을 넘으면서 남긴 기록이다(『暮躰槲嶺作』).

“어둑해질 무렵, 칠량(七良)에서 대구(大口)로 가다가 문득 험준한 고개를 만났다. 이곳에 호랑이가 산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높은 민가까지 내려와 개를 채가듯이 소를 채가고, 사람은 보면 군침을 흘린다고 했다. 유배 와서 5~6년,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부득부득 애를 썼는데 여기서 허무하게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3. 불확실성 속의 여행

200년 전, 제주도 선비 장한철은 일찌감치 과거길에 올랐다. 한양에서 실시하는 회시(會試)는 1771년 3월에 열렸는데 그는 3개월 전인 1770년 12월 말에 제주를 출발했다. 도중에 폭풍을 만나 일본으로 표류까지 했다가 가까스로 귀국해 한양에 도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찍 제주를 출발했던 덕분이었다(그러나 그해 시험에서 장한철은 낙방했다. 1775년에 급제했다).

조선시대 여행의 소요시간을 종잡을 수 없었고 과거길에 무슨 변고를 겪을지 몰라 응시자들은 일찌감치 과장이 있는 한양에 올라가 그곳에 머물렀다. 또한 과외를 받거나 시험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수년, 수개월 전부터 한양에 체류했다.

과거길의 여행이나 한양 체류에는 많은 돈이 들었다. 장한철의 경우, 지역민들이 돈을 보태 과거길에 오를 수 있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이런 비용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집안이나 아낙네들의 고충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기회가 된다면 남원 출신으로 한양에서 과거 준비를 하는 남편을 뒷바라지를 했던 삼의당 김씨가 남긴 시문(『삼의당 김씨 유고』, 『삼의당 김씨 시선』)을 읽어보기 바란다.

제7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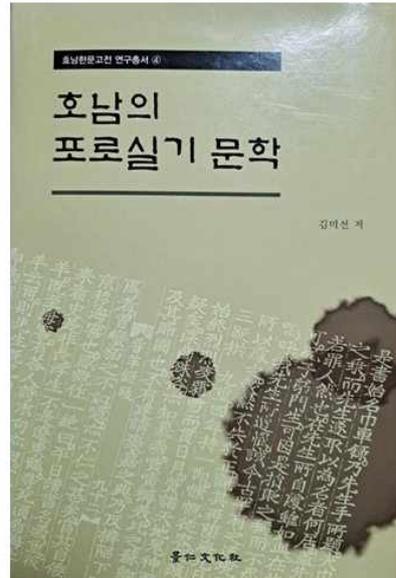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생활

김미선

전남대 교수

차례

- 1. 임진왜란과 실기문학
 - 2.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실기
 - 3. 실기로 본 임진왜란 포로생활
- 김미선, 『호남의 포로실기 문학』, 경인문화사, 2014.



2

1. 임진왜란과 실기문학

-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치러진 전쟁으로, 조선에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힘. 9~14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타국으로 잡혀감.
-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체험을 겪은 사람들은 다양한 기록으로 본인들이 겪은 일을 남김. 사람들은 기록을 남김으로써 전쟁의 참혹함을 토로하였고, 훗날 후손들이 같은 비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한 대비책을 삼게 하고자 함.

3

1. 임진왜란과 실기문학

- 문학에 있어서도 다양한 작품이 창작되어 민족이 겪은 비극적인 전쟁을 형상화함. 시조, 가사, 한시, 실기, 전, 소설, 설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창작됨. 이 중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쓴 실기(實記)는 가장 생생하게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문학작품임.
- 저자 본인의 직접적인 전쟁 체험을 기록한 것이기에 사실적이며, 현장성을 가짐. 당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실과 극한 상황에서의 감정이 서술되어 있어, 사실만을 기록한 역사기록에는 없는 감동을 지니며, 허구적인 상상문학과는 또 다른 문학적 가치를 가짐.

4

2.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실기

순번	실기	저자	지역
1	간양록 (看羊錄)	강항(姜沆, 1567~1618)	영광
2	금계일기 (錦溪日記)	노인(魯認, 1566~1622)	나주
3	만사록 (萬死錄)	정경득(鄭慶得, 1569~1630)	함평
4	월봉해상록 (月峰海上錄)	정희득(鄭希得, 1575~1640)	함평
5	정유피란기 (丁酉避亂記)	정호인(鄭好仁, 1579~?)	함평

5

2.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실기

-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는 5편이 현전함. 저자는 모두 호남의 문인으로 1597년 재침입 때 20~30대의 젊은 나이로 2~4년간 포로로서 해외를 체험함. 이들의 실기에는 직접 겪은 임진왜란 포로의 비극이 생생하게 형상화됨.

6

2.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실기

- 강항은 1597년 9월에 온 가족이 배로 피란을 떠났다가 피랍됨. 이후 이예주(伊豫州) 대진성(大津城)에 유치되었다가, 섭진주(攝津州) 대판성(大坂城)으로, 다시 산성주(山城州) 복견성(伏見城)으로 이송. 일본 억류 생활 중 세 차례나 탈출 시도를 하다 실패하였고, 1600년 4월 일본의 승인을 얻어 귀국길에 올라 5월 19일에 부산에 도착함.

7

2.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살기

- 『간양록』은 이러한 해외체험을 기록한 것으로 임금께 올린 소(疏)인 「적중봉소(賊中封疏)」,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조선으로 돌아 온 후 곧바로 조정 에 바친 글인 「적중문견록(賊中聞見錄)」, 포로들에게 당부하는 글인 「고부인격(告俘人檄)」, 부산에 도착하여 한양으로 바로 올라간 직후 일본의 사정에 대해 작성한 「예승정원계사(詣承政院啓辭)」, 해외체험의 전 과정을 일기체로 작성한 「섭난사적(涉亂事迹)」으로 이루어짐.

8

2.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살기

- 노인은 1597년 8월에 남원성이 함락되었을 때, 도원수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가다가 포로가 됨. 그 후 일본으로 잡혀가 이예주(伊豫州) 부혈(浮穴)에서 억류 생활 중 한 차례 배를 타고 탈출하려다 실패한 후 화천주(和泉州) 일근(日根) 지역으로 이송됨. 화천주에서 만난 중국 차관 진병산(陳屏山)과 이원징(李源澄)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가는 배편으로 탈출을 시도하여 1599년 3월 17일에 탈출에 성공. 중국 복건성(福建省)으로 갔다가 귀국을 승인받고, 북경을 거쳐 1600년 1월에 한양으로 돌아옴.

9

2.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실기

- 현전하는 『금계일기』는 1599년 2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4개월 7일간의 기록으로 앞과 뒤가 끊어진 채 필사본으로 전해짐. 전해지는 것 전후로도 일기를 썼을 것으로 추측되나, 포로로 보낸 2년 5개월 가량의 경험 중 4개월여의 일기만 전해짐. 그러나 다른 포로실기에는 없는 중국으로의 탈출 과정과 중국체험 부분이 담겨 있고 양적으로도 풍부하여, 현전하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음.

10

2.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실기

- 정희득은 가족과 친척이 함께 뱃길로 피란을 떠났다가 1597년 9월 27일에 왜적에게 잡힘. 잡힐 때 어머니와 형수, 아내와 누이동생이 바다에 빠져 자결하였고, 정희득은 형 정경득(鄭慶得), 집안 사람인 정호인(鄭好仁) 형제 등과 함께 일본 아파주(阿波州) 덕도성(德島城)으로 압송됨. 이후 1598년 11월 22일에 덕도성을 출발하여 귀국길에 올랐고, 6개월 가량을 대마도에 다시 억류당한 끝에 1599년 6월 17일에 대마도를 출발, 6월 29일에 부산에 도착함.

11

2.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실기

- 『월봉해상록』은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1에는 소(疏), 풍토기(風土記), 일록(日錄)이 실려 있고 권2에는 시(詩) 460여 수가 실려 있음. 특히 일록과 시가 개성적이며 내용도 풍부함.

12

2. 호남지역 선비들의 포로실기

순번	실기 (저자)	서술 특성	저자의 시각
1	간양록 (강항)	- 노정의 요약적 제시 - 소(疏), 록(錄) 등으로 견문 체계적 기술	관료의 사환의식
2	금계일기 (노인)	- 탈출 과정의 구체적 묘사 - 최귀문(催歸文)과 중국인 문답	학자의 중국문화 관심
3	월봉해상록 (정희득)	- 귀환의지의 걱정적 토로 - 국내 노정의 고통 기술	자연인의 개인적 정한(情恨)

3. 실기로 본 임진왜란 포로생활

- 적은 신이 사족(士族)임을 알고서 신과 형·아우를 일제히 선루(船樓)에 결박하고, 배를 돌려 무안현의 한 바다 모퉁이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적선 6백, 7백 척이 두어 리에 걸쳐 가득 차 있었고, 우리나라 남녀가 왜놈과 더불어 거의 반반씩 되었는데 이 배 저 배에서 부르짖어 우는 소리가 바다와 산을 진동하였습니다.

- - 강항, 『간양록』, 「적중봉소」

14

3. 실기로 본 임진왜란 포로생활

- 드디어 어머니·형수님·누이동생과 더불어, 앞을 다투어 바다에 몸을 던졌다. 우리 형제는 적도(賊徒)가 배 안에 묶어 두어 죽으려야 죽을 수도 없었으니, 망극하고 통곡할 뿐이었다. 법포(法浦)에서 피란하던 배가 당초에는 바둑판 벌여 있듯 했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만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쳐, 간장이 찢어질 듯하였다.

- - 정희득, 『월봉해상록』, 1597년 9월 27일

15

3. 실기로 본 임진왜란 포로생활

- 夢中言笑似平時 꿈속의 말과 웃음 평시와 다름없어
 - 細吐心中無限悲 마음속 무한한 슬픔 날날이 떨어 놓네
 - 做得一場琴瑟樂 한바탕 부부의 즐거움 일으켜 놀다가
 - 覺來孤枕淚漣漣 깨어나니 외로운 베갯머리 눈물이 흥건
- - 정희득, 『월봉해상록』, <죽은 아내가 밥을 주는 꿈을 꾸고
(夢見亡妻食我以飯覺卽悲感)>

16

3. 실기로 본 임진왜란 포로생활

- 다리 위에서 하천극(河天極)을 만났다. 아파성 아래 길다란 강이 있고, 강 위에 홍예다리[虹橋]가 있는데, 다리 위에서는 매양 열 사람을 만나면, 8~9명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하군은 진주의 이름난 족벌인데, 외양간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밤이면 다리 위에 모여, 흑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불며, 흑은 회포도 말하고 한숨지어 울부짖기도 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진다. 이 다리 위에는 백여 인이 앉을 만하다.
- - 정희득, 『월봉해상록』, 1598년 3월 4일

17

3. 실기로 본 임진왜란 포로생활

- 금산(金山) 출석사(出石寺)의 중 호인(好仁)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자못 문자를 해독하였습니다. 신을 보고 슬프게 여겨 예우가 남보다 더했으며, 따라서 신에게 그 나라 제판(題判, 판청에서 백성이 올린 소장에 쓰는 판결)을 보여 주었는데, 방여(方輿)와 직관(職官)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이기에 신이 곧 등사하였습니다. - 강항, 『간양록』, 「적중봉소」
- 신이 갖가지 계획으로 돌아갈 것을 도모하였으나 수중에 돈 한 푼이 없기에 마지못해 왜승에게 글씨품을 팔아 은전 50여 개를 얻었습니다. - 강항, 『간양록』, 「적중봉소」

18

3. 실기로 본 임진왜란 포로생활

- 나는 거룻배를 타고 연안을 몰래 떠나서 개펄 밖에 작은 섬을 의지해 대니 거리는 15리 남짓했다. 밤이 새도록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해가 뜰 무렵에 중국 배가 과연 갯가로 나와 돛을 반쯤 달고 차츰 작은 섬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었다. 나는 거룻배로 나가 맞이하며 뱃머리에 서서 손을 흔들며 임공을 급히 부르니, 진·이가 바라보며 돛을 내리므로 나는 노를 재촉하며 나는 듯이 중국 배 곁으로 갔다. 진·이가 커다란 밧줄 두 끝을 내려뜨려 거룻배의 앞뒤를 매게 하고, 또 새끼줄 하나를 내리므로 나는 먼저 붙들고 올라갔다.
 - - 노인, 『금계일기』, 1599년 3월 17일

19

3. 실기로 본 임진왜란 포로생활

- 새벽에 떠났다. 길이 막혀 풀이며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 증일을 가도 인적을 볼 수 없고 길옆에는 백골(白骨)이 쌓여 있었다. 물어보니 우리 군사와 적병이 싸웠던 곳이라 했다.
 - - 정희득, 『월봉해상록』, 1599년 7월 7일
- 초동(草洞)에 가서 장모님을 뵈고, 우아(遇兒)를 데리고 왔다. 나이 벌써 6세이다. 사람은 죽어도 흔적은 남았다. 지난 일 아득하여 애절한 심회 어찌 말로써 다 하리오.
 - - 정희득, 『월봉해상록』, 1599년 7월 28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Honam Foundation

주 소 :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 삼호별관 2층

전 화 : 062-234-2727 팩 스 : 062-234-2728

홈페이지 : <http://www.rcef.or.kr> 이 메 일 : r-cultural@hanmail.net

지은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펴낸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김덕진

펴낸일 2021년 7월 22일

인 쇄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1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한국학 열린강좌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